

2011년 한국치안행정학회 하계학술세미나

2011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안전대책

- 일시 : 2011년 6월 3일(금)
- 장소 : 대구 그랜드 호텔 5층 프라자홀
- 주최 : 한국치안행정학회
- 주관 : 대구한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
- 후원 : 대구은행, (주)예죽, (주)우경공영, (주)비진경호시스템,
(주)타코플러스, 도서출판 진영사



개회사



존경하는 한국치안행정학회 회원 여러분 !

가정, 그리고 대학 및 직장에 행운과 웃음이 가득하길 기원 드립니다.

오늘 학술세미나의 대주제는 <2011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안전관리 대책>입니다. 즉 어떻게 하면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안전하게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는지에 대한 정책적, 학술적 고민입니다.

2011년 8월 27일 대구에서 개최되는 세계육상선수권대회는 올림픽, 월드컵 축구대회와 함께 세계 3대 스포츠행사입니다. 그 만큼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으며, 많은 국가에서 선수와 임원, 관광객들이 참여합니다.

또한, 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같은 국제스포츠 행사는 테러를 시도하는 단체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 선전효과 측면에서 매우 좋은 기회이며, 테러 대상 또한 특정인으로 한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커브들이 한 장소에 집중적으로 모이는 경기장이나 부대시설은 대부분 언론매체 등을 통해 단시간에 전 세계적으로 정확하게 알려집니다. 따라서 테러단체의 주요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국제 스포츠 행사의 안전 대책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시작하여 이 학술세미나를 기획하고, 대한민국의 최고 전문가들로 하여금 오랜 연구를 통해서 발표와 토론, 그리고 ROUND TABLE이 진행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많은 전국에서 오신 여러 교수님들과 학자, 경찰 실무자, 국가정보원, 그리고 민간경비업체 관계자들이 계십니다.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학회의 생명은 회원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입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발전을 위한 제언 부탁드립니다.

회원 모든 분들의 건강과 학문적 성취를 기원합니다.

2011. 6. 3.

한국치안행정학회장 박 동 군



환영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1 『한국치안행정학회』 하계학술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 우리 대구를 방문해 주신 회원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 행사를 빛내 주시기 위해 바쁘신 가운데도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이한구 국회의원님, 이준구 대구한의대학교 총장님, 그리고 강기중 대구지방경찰청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대구에서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안전대책에 대한 하계학술세미나 개최를 위해 애써주신 박동균 한국치안행정학회장과 여러 회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해서는 최상의 경기운영시스템 구축과 함께 테러안전 대책, 경호경비 등 치안과 안전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우선시 되어야 하므로 오늘 세미나에서 나온 소중한 의견을 대회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세계 3대 스포츠 이벤트인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통해 지구촌 65억명 이상이 TV 중계로 생생한 경기장면과 함께 우리 대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 회원님들도 가족,친지들과 함께 오는 8월27일부터 9월4일까지 개최될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스타디움을 방문하여 세계 최고의 육상 스타들이 펼치는 인간한계의 기록달성 현장에 직접 참여하여 주십시오.

끝으로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안전대책을 위한 학술세미나에 참석하여 주신 내빈 여러분과 한국치안행정학회 회원님들의 앞날에 발전과 행운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1. 6. 3.

대구광역시장 김 범 일



IAAF 세계육상선수권대회

IAAF World Championships Daegu 2011

2011 한국치안행정학회 하계학술세미나

■ 1시 ~ 1시 30분 등록 및 접수 : 대구 그랜드호텔(범어동) 5층

■ 1시30분 ~ 2시 개 회 식

사회 : 조성제(총무위원장, 대구한의대)

- **개회사** 박 동 균(한국치안행정학회장, 대구한의대)
- **환영사** 김 범 일(대구광역시장)
- **축 사** 이 한 구(국회의원)
이 준 구(대구한의대학교 총장)
강 기 중(대구지방경찰청장)
- **Keynote Speech** 국제스포츠 행사 안전대책의 중요성과 방향(박동균 학회장)
- 기념촬영

■ 2시 ~ 5시 40분 학술발표

진행 : 박성수(연구위원장, 세명대)

● 2시 ~ 4시 20분

사회 : 최응렬(한국공안행정학회장, 동국대)

발표 1 조광래(중부대)

IAAF 세계육상선수권대회 테러안전 대책

토 론 : 김명곤(대경대) 공배완(경남대) 주일엽(중부대)

사회 : 한상암(한국경찰학회장, 원광대)

발표 2 김용현(영남이공대)

IAAF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안전개최를 위한 경찰의 지원방안

토 론 : 조두원(경일대) 신승균(영산대) 이성용(계명대)

사회 : 신현기(한국자치경찰학회장, 한세대)

발표 3 김태민(경운대)

IAAF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안전개최를 위한 경호경비운용

토 론 : 서진석(중부대) 안황권(경기대) 박억중(국민대)

● 4시 30분 ~ 5시 40분

■ **ROUND TABLE** IAAF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안전관리대책

사회 : 이상철(전 한국경호경비학회장, 용인대)

종합토론

김진환(용인대)

김종오(동의대)

김순석(신라대)

송영남((주) 예죽)

곽영길(청양대)

이상열(한국복지사이버대)

■ 6시 만찬



국제스포츠 행사의 안전대책 : 중요성 및 방향

박동균(한국치안행정학회 회장,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I. 글머리에

오늘날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테러의 유형과 양상의 근본적 변화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의 1,000개 이상의 크고 작은 테러리스트, 범죄단체와의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다.

최근 국제스포츠 행사 개최국들은 빈발하고 있는 국제테러,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여 참가인원, 시설, 행사 및 경기에 대한 안전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이는 대회 기간 중 국제테러, 안전사고 등 위기발생시 대회 자체가 실패한 대회로 평가받는 것은 물론 개최국의 국제 신뢰도 저하가 필연적으로 수반되기 때문이다(주일엽, 2006 : 84). 지난 2002년 10월 12일 발생한 인도네시아 발리 폭탄테러 사건으로 인도네시아의 국가 이미지가 손상되었고, 이어 발생한 필리핀 폭탄 테러사건(2002. 10. 20)으로 인해 필리핀 관광객이 급감하는 등 국가적인 위기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실정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조광래, 2003 : 139).

한국은 2011년 8월 대구에서 세계국제육상경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제스포츠행사시 주최 측에서는 대테러 대책 및 경호안전 활동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이는 테러를 시도하는 자들의 입장에서는 그 효과 측면에서 가장 좋은 기회이며, 테러대상 또한 특정 인으로 한정하지 않아도 되고, 많은 사람들과 귀빈들이 한 장소에 집중적으로 모이는 회의장과 시설은 대부분 언론매체 등을 통해 정확하게 알려지기 때문에 보다 용이하게 테러를 감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II. 국제스포츠 행사의 안전관리 중요성

국제육상경기대회는 하계 올림픽, 월드컵 축구와 함께 세계 3대 국제 스포츠행사이다. 그 만큼

전세계의 언론의 주목을 받으며, 많은 국가에서 관광객들이 참여한다. 이와 같은 국제 스포츠 행사에 대한 테러대응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 중요성이 있다.

첫째, 국제행사에 대한 안전확보야말로 최대의 서비스이다. 개최국의 모든 국민들에게 유익한 국제회의나 스포츠라 하더라도 테러, 사고, 전쟁, 질병, 무질서 등 생명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해방되려는 안전욕구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로서 가장 우선시되는 것이다.

둘째, 안전한 행사개최는 국가간의 관계 증진은 물론 세계평화와 인류화합에 중대한 진전을 이룬다.

셋째, 안전한 행사진행은 경제난 극복과 경제안정을 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는 경제적인 기회통합과 국민적 화합을 다질 수 있는 비계량적 유발효과를 가져온다.

넷째, 국제회의에 참석한 국가정상이나 보도진, 관광객들의 신변안전 보호와 질서유지를 통하여 국위선양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김두현, 2004 : 76).

III. 국제스포츠 행사의 안전관리 방향

지구상에 테러의 안전지대는 존재하지 않으며, 그 어떤 국가나 공동체 그리고 개인도 테러로부터 안전할 수 없다. 특히, 아시아·태평양지역은 경제적인 역동성과 함께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세계 주요 국가들의 존재로 인해 그 전략적 중요성이 매우 높은 지역이고, 특히 한국은 지역적 요충지로서 향후 주변 국가와의 관계 여하에 따라 외교적 입지에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된다.

세계 각국들이 테러에 대하여 공통으로 추구하는 것은 테러방지법을 제정¹⁾하고, 대테러 전담기구를 설치하며, 테러담당 요원들을 전문화하고, 공항 등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보안검색을 강화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장석현, 2006 : 89). 한국의 경우에도,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국제적인 테러대책에 부응하기 위해서 테러방지법을 제정해야 하고, 대테러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테러에 대한 예방, 진압, 연구, 홍보 등 테러대책을 강화²⁾해야 한다.

1) 9·11 테러의 당사국인 미국은 테러리즘의 차단 및 방비에 필요한 법(USA Patriot Act, 애국법)을 2001년 10월 26일에 제정하였고, 영국도 미국의 대테러 노선을 같이 한다는 의미에서 반테러법을 강화하여 테러방지 및 보안법(Anti-Terrorism Crime & Security Act)을 제정하였다(이창용, 2005 : 218). 독일은 9·11 테러의 사전모의기지이며, 당시 비행기 납치범들이 함부르크 세포조직의 일원으로 밝혀지자 기존의 광범위한 테러대책법에 부가하여 대테러대책법을 제정하여 2002년 1월 1일 시행하고(손동권, 2004 : 237), 이민법을 개정하였다. 캐나다는 공항 보안검색이 비교적 소홀한 아동을 이용한 테러에 대비하고, 자국을 경유한 미국 밀입국을 막기 위해 최근 18세 미만 청소년과 어린이를 동반해 입국하는 보호자에게 영문 증빙서류 지참을 권고하고 있다. 일본은 자위대의 활동범위를 국외로 확대하고,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허용하는 테러대책특별조치법을 2001년 12월에 제정하는 한편 생물테러의 처벌을 위한 관련 법률을 정비하는 등 테러대책 법제 정비를 완료하였다(김두현, 2004 : 13-14).

2011 대구세계국제육상경기대회와 같은 국제 스포츠 행사는 개최기간 중에 테러나 안전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에 그 자체가 실패할 뿐만 아니라 많은 생명과 재산, 시설이 파괴된다.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개최국의 신뢰도 저하가 수반되기 때문에 안전대책 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주일엽, 2006 : 84).

이러한 맥락에서, 국제스포츠행사에 대한 안전대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규모 국제 행사 개최시 숙박 및 행사장의 안전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 또한 이에 못지않게 잘 훈련된 전문가인 안전요원 및 행사요원의 양성이 중요하다(박동균, 2006 : 35).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전문 민간경비 회사와의 계약을 통해 행사의 비용절감과 효율을 최대화 시키고 있다. 지난 1998년 영국의 ASEM 행사시에는 회의장 경비문제를 전직 공안요원이 운영하는 민간경비 회사에 일임하여 행사를 치룬 바 있다. 이는 정부 주도의 관행사는 자칫 타성에 빠지거나 경쟁력 부족으로 과도한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는 것이 영국측의 견해였다.

또한, 2002년 한일 월드컵대회의 경우, 일본이 경비회사의 안전전문요원을 배치하여 경기장 분위기를 부드럽게 한 반면에, 한국은 정복 차림의 경찰관들이 경기장내에 많이 들어와 위압감을 주었고, 지나치게 자세가 경직되었다는 지적을 받았다(권정훈, 2003 : 70). 경호나 안전문제는 경험이나 노하우의 축적 없이는 성공적인 행사개최를 장담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임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둘째, 테러리스트들의 전략과 전술을 명확히 이해하고 정보를 활용하여 그들보다 앞서나가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평상시에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테러리즘에 대한 연구와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주도하에 테러리즘에 대한 직·간접적인 교육과 연구 활동을 촉진시켜 테러리즘의 다양한 측면과 대응책 등 테러리즘에 대한 전반적인 안목을 국민들에게 길러줌으로써 만일의 사태에 총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즉, 테러가 발생하면 정부는 국민들에게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려주어야 하며, 그 요점은 테러리즘이란 이상주의가 아니라 범죄이며, 테러리스트들은 범죄자라는 것을 명백하게 부각시키는 것이다(이창용, 2005 : 221). 또한, 정부와 학회, 유관단체들은 테러리즘에 대한 국제 세미나 등 연구 활동에 따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 교육 자료로 활용하고, 안전장비 및 시설의 첨단과학화 및 통합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셋째, 뉴테러리즘의 한 수단으로서 사용되는 사이버 테러(cyber terror)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을

2) 주일엽(2006 : 109)은 국제스포츠대회 안전 활동을 계획, 준비, 시행, 평가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계획단계에서는 참여도 제고를 위한 안전법규 강화, 안전기구의 유기적인 상호작용 보장, 안전예산의 충분한 확보 및 합리적 집행, 현실성 있는 안전계획 수립 등을 통한 체계적인 안전 활동 기반조성이 필요하다. 준비단계에서는 안전기구간 긴밀한 안전체제 구축, 안전 분야별 내실 있는 위해분석 실시, 현장적용이 가능한 실질적인 안전대책 수립, 안전장비의 과학화, 현장위주의 교육훈련 실시, 안전홍보 강화로 관심 및 협조유도 등이 요구된다. 시행단계에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안전상황 관리, 총체적이고 체계적인 안전조치 실시, 효율적이고 원칙에 입각한 자원관리 모색 등의 요건이 구비되어야 하고, 평가단계에서는 공정하고 엄격한 결과분석 실시, 과학적인 자료관리가 요구된다.

마련해야 한다.

과거 1998년 6월, 인도가 핵 실험을 실시한 직후에 영국과 네덜란드 대학생들이 인도 핵무기 연구소의 웹 사이트에 핵무기를 상징하는 버섯구름 사진을 무차별적으로 게재하였다. 또한, 1999년 나토의 유고 주재 중국 대사관 오폭 사건으로 인해서 중국의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자 일부 중국인들은 백악관과 국무성을 비롯한 웹 사이트를 해킹 하였다. 이로 인해서 백악관 웹 사이트는 중국어와 영어로 된 각종 낙서들로 장식 되었고, 장시간 동안 사용불능 상태까지 이르렀다.

1999년 4월 26일, CIH 대란은 대만의 대학생이 제작한 짧은 바이러스 프로그램이 인터넷을 통해 기하급수적으로 퍼져 한국에서만 30만대의 PC를 손상시켰다. PC 수리비와 데이터 복구비용만 해도 20억원 이상이 소요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그 피해액은 무려 2억 5천만 달러로 추정된다. 미국에서는 이미 NORAD(북미 방공사령부)와 우주사령부가 연대하여 세계적인 규모로 테러를 대비할 수 있는 만전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또한 2009년 7월 7일 미국과 한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DDoS와 최근의 사이버 테러는 인터넷판 9·11 테러라고 불릴 정도로 그 파장이 컸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이버 테러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한국 웹 사이트의 상당수가 보안조치에 허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심지어는 수백만명 이상의 회원이 가입한 유명 포털 사이트도 보안조치에는 미흡한 편이다.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제 한국은 국제회의 및 스포츠 행사 등 다양한 대형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험이 있다. 또한 앞으로 2011년 대구국제육상경기대회 등 세계인들이 주목하는 국제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행사준비는 국가적인 차원에서만 대응해서는 안 된다. 모든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테러의 목표물이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가정 하에서 이에 대비한다면 테러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참 고 문 헌

- 권정훈(2003), 국제행사시 경호안전 대책방안, 『용인대학교 경호학석사 학위논문』, 용인대학교 대학원.
- 김두현(2004), 국제테러의 양상과 테러발생시 위기관리체제, 『제13회 한국경호경비학회 학술발표 논문집』, 한국경호경비학회.
- 김두현(2005), 최근 국제테러의 양상에 대비한 한국 테러예방 방안, 『한국경찰학회보』 10호, 한국경찰학회.
- 김진혁(2004), 국내외 테러동향 및 향후 대응방안, 『한국경찰학회보』 8호, 한국경찰학회.
- 노호래·김창윤(2002), 뉴 테러리즘의 특징과 예방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민간경비학회보』 제1호, 한국민간경비학회.
- 박동균(2006), 상주MBC 가요콘서트 사례를 통해 본 혼잡경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한국지방자치연구』 16호, 대한지방자치학회.
- 이선기(2007), 국제회의 행사의 안전활동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6호, 한국공안행정학회.
- 이황우·곽대경(2005), 부산APEC 정상회의에 대비한 대테러·안전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1호, 한국공안행정학회.
- 이창용(2005), 테러리즘 방지를 위한 한국형 위기관리 시스템 구축방안, 『지방정부 연구』 9권 2호, 한국지방정부학회.
- 장석현(2006), 중요 국가시설의 대테러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민간경비학회보』 8호, 한국민간경비학회.
- 조광래(2003), 국제스포츠행사의 테러행위 대책, 『경호경비연구』 제6호, 한국경호경비학회.
- 주일엽(2006), 국제스포츠대회 안전활동에 대한 델파이 분석,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4호, 한국공안행정학회.
- 최윤수(2003), 국제행사 개최시 테러리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민간경비학회보』 2호, 한국민간경비학회.
- Benjamin Netanyahu(1986), Defining Terrorism: How The West Can Win?, New York: Farrar.
- David F Forte(1986), Terror and Terrorism : There is Difference. 13 Ohio Northern University Law Review.
- Edward A. Lynch(1987), International Terrorism: The Search for a Policy". Terrorism, Vol. 9.



목 차

● 발표 1 ●

- IAAF 세계육상선수권대회 테러안전 대책 1
조광래(중부대)

● 발표 2 ●

- IAAF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안전개최를 위한 경찰의 지원방안 13
김용현(영남이공대)

● 발표 3 ●

- IAAF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안전개최를 위한 경호경비운용 31
김태민(경운대)



발표 1

IAAF 세계육상선수권대회 테러안전 대책

조 광 래(중부대학교 경찰경호학과 교수)

<목 차>

- | | |
|----------------------------------|----------------------------|
| I. 들어가며 | III.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국내·외 테러환경 |
| II.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당시의 테러안전활동 분석 | IV.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대비 테러안전대책 |

I. 들어가며

인류의 역사는 테러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테러와의 전쟁은 인류와 함께 했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지속되고 있다. 테러를 자행하는 공격자는 다양한 인물·조직의 모습으로 방어하는 수단을 피하면서 예기치 못했던 공격방법을 고안하여 목적을 달성하는 형태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응하는 방어자 역시 공격자의 의도를 간파하여 대비책을 강구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방어대책을 강구하였다. 일부에서는 인류의 테러행위에 대하여 옹호하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소수가 다수가 지배하는 구조 하에서 그들이 주장하는 바를 얻기 위한 최후의 수단적 성격을 지적하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어떠한 형태이더라도 하나의 정치사회적 질서가 그 시대에 존재하는 한 그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는 비록 그 행위가 인류의 행복이나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명분을 내세운다 할지라도 테러를 당하는 입장에서는 그 시대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테러에 대비한 안전대책을 강구해야만 하는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구소련이 대립하던 이데올로기의 전쟁이 종료된 후에도 인류는 끊임없는 테러와의 전쟁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며 이제 전 지구상 어느 나라도 테러에서 안전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전쟁 휴전 이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북한으로부터 군사적·비군사적 도발에 시달렸으며¹⁾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는 남북관계는 천안함 폭침사건에 이어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결정적인 군사적 도발을 맞이하게 되었다. 하

1) 김상기 육군참모총장은 지난 5월24일 실시된 충청남도 초·중·고교장 750여명 대상 안보특강에서 “북한은 휴전 후 지금까지 2800여회의 각종 대남 도발을 자행했으며 도발이 없었던 해는 5년에 불과하다”고 하였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5/24/2011052401029.html)

지만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테러의 위협은 북한만이 아니다. 해외의 각종 테러단체를 포함하여 우리나라 내부의 자생적 테러단체에 이르기까지 실로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시대의 변화는 환경의 변화를 의미한다. 10년 전의 테러위협요인이 지금은 더 이상 위협요인으로서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위협은 장기간에 걸쳐 존재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위협이 더해지는 양상을 나타내는 것이 특징이라고 하겠다.

이제 100일도 남지 않은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전 국민의 염원과 기대를 함께 모으고 있는 이때 대회의 성공을 위한 가장 필수적인 경기외적 요인 중의 하나는 대회의 안전문제이다. 분명 그 누군가 혹은 어느 단체는 대회를 방해하기 위한 직·간접적인 시도를 할 것이고 우리는 완전무결한 방어태세를 갖추고 이들에 의한 대회방해책동을 분쇄해야 하는 것이다.

이미 대구지역은 지난 2003년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험이 있으므로 그 당시의 경험과 노하우를 되살리고 일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대두된 테러위협요인에 대하여 만반의 준비를 갖춘다면 분명 안전한 대회가 될 것임을 확신한다. 2003년 유니버시아드 대회 당시에도 북한 선수단 참가 등 당시로서는 새롭게 대두된 상당한 정도의 테러안전위협요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테러안전 대비태세를 통해 성공적 개최로 마무리 하였다. 하지만 8년이 지난 지금 역시 그 당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새로운 위협이 또다시 대두되었으며 당시의 성공적 개최 경험만을 근거로 대회의 성공적 대회진행을 낙관한다면 이는 결코 안 될 것이다.

금번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앞두고 국정원을 중심으로 각 부처가 합동으로 안전대책기구를 발족시켜서 각종 위협요인에 대한 사전 예방조치를 강구하고 있으며 대회를 얼마 남기지 않은 이 시점에서는 이미 준비단계를 넘어 대비태세로 본격 돌입하였지만 본 논문에서는 이미 성공적으로 테러안전대책 임무를 완수한 2003년도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의 테러안전대책을 중심으로 그 당시의 안전대책에 대하여 살펴보고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국내외 테러관련 위협요인을 지적하면서 앞으로도 평창동계올림픽과 인천 아시안게임 등 계속될 국제규모 스포츠대회의 대테러안전대책에 대한 근본적이면서도 장기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II.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당시의 테러안전활동 분석²⁾

2003년은 9.11테러 사건 이후 미국의 對아프가니스탄 및 이라크 전쟁으로 인해 알 카에다 등 국제테러조직의 테러위협이 증대되고 있는 시점이었으며 이라크, 동티모르, 이스라엘, 아프가니

2) 제II장은 2003년 대구에서 열린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종료 후 국가정보원 안전대책통제본부에서 발간한 “안전활동결과” 보고서(2003.10, 국정원)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임.

스탄 및 북한 등 분쟁당사국이나 테러지원국이 참여한 대회였다. 동시에 2003년은 김대중정부 이후 새롭게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 시점이었으며 남북한 관계는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더불어 햇볕 정책으로 인해 대북지원이 증대되면서 남북해빙무드가 본격적으로 조성되고 있었으므로 북한에 의한 테러위험은 상대적으로 낮았다고 할 수 있다.

1. 테러 대응체계 구축

국정원은 7.1~8.31간 본부에 「대테러·안전지원단」을 운영, 국내외 정보기관으로부터 입수한 국제 테러분자 및 테러조직 동향 등 테러관련 정보를 종합분석하여 매일 1회 안전통제본부와 유관기관에 지원하고 관세청과 합동으로 공항만 관계자를 대상으로 국제범죄 순회교육을 실시하여 현장대응능력을 제고시켰다

또한 테러 대응체제는 예방활동체제와 사건대응체제로 구분하여, 예방활동체제는 총괄조정기구인 「안전대책통제본부」·「현장안전통제실」 및 분야별 현장안전활동 전담조직으로 구성하였으며 사건대응체제는 대통령 훈령 제47호 “국가대테러활동지침”에 규정된 「대테러대책위원회」·「대테러실무위원회」·「현장지휘소」·「특공대」·「협상팀」 및 「테러사건합동조사반」으로 구성하였다.

2. 예상 테러유형별 대응활동

국정원은 대회기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테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유형별로 예상하고 이에 대비한 대응책을 강구하였다

- 1) 폭탄·총기난사 테러
- 2) 인질납치·대량살상 테러
- 3) 항공기 및 비행물체 이용 테러
- 4) 생화학·독극물 이용 테러

3. 단계별 대테러 대책 수립 시행

1) 1단계 (2003. 5. 1 ~ 7.30)

1단계에서는 대테러 관련 정보활동 단계라고 하겠다. 당시 미국의 對이라크 전쟁과 관련하여 대구·경북지역의 주한미군시설 및 국가중요시설에 경비병력을 증강배치 하였으며 공항만 보안 검색 강화 등 조치를 취하였다.

특히 테러를 대회 최대 위협요인으로 간주하고 대테러 인력과 장비를 보강하는데 주력하여서

안전요원 및 종사자 등 대회 관련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대테러 대책을 점검 및 보완하였다.

2) 2단계(2003. 8. 1 ~ 9. 3)

안전본부 주관의 대테러 대응태세 단계라고 하겠다. 대테러 특공대 등 대테러 조직을 대회 현장에 배치하여 안전활동 체제로 전환하였으며 안전종합상황실 주관으로 테러용의자에 대한 출입국 관련정보를 추적 감시하였으며 실시간 상황전파체제를 본격적으로 가동한 단계라 할 수 있다.

행사 실시 기간을 통하여 테러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만약의 테러사건 발생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즉응태세를 완비하였다.

4. 세부 분야별 대테러 활동

1) 「U대회 대테러·안전지원단」 편성·운영

지원단 산하에 기획조정처, 정보협력처, 안전지원처, 상황지원반 등 부서를 두고 테러위험을 예방 및 차단하는 한편 중앙차원의 안전대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였다

2) 경찰 대테러 특공대 배치 운영

경기장 등 대회관련 시설과 국제공항 등 주요시설에 경찰 대테러 특공대를 배치하여 인적·물적 테러위험에 대비하고 주요인사, 선수단, 관람객에 대한 신변보호 활동을 중점 수행하였다

3) 공중테러 대비태세 유지

경기장 상공을 경기시작 2시간 전부터 경기 종료후 30분 까지 임시 비행금지구역(NOTAM)으로 설정하였으며 개·폐회식 행사간 공군 전투기로 편성된 공군초계전력을 운용 하는 등 완벽한 대공경계태세를 유지하였다.

4) 화생방 테러 대비태세 유지

대회장 주변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 군 화생 테러대미부대, 소방 화생방대응반, 국립보건원 및 시도 방재센터 요원으로 편성된 화생방 전담조직을 통합 운영하여 다양한 화생방 공격 형태에 대비하여 상황발생시 즉시 출동할 수 있는 비상대비태세를 강화 하였다.

5) 폭발물테러 대비태세 유지

불순분자에 의한 경기장내 폭발물 반입 등에 대비하여 폭발물 처리 전담반(EOD)을 대회 2일

전부터 폐회일까지 운영하였다.

Ⅲ.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국내·외 테러환경

한 국가에 테러가 발생할 경우 테러 발생 지역에 그 영향이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테러 관련 사건 역시 그 범위가 우리나라 전체를 망라한다고 할 수 있다. 대회에 임박하여 서울이나 대구, 부산, 광주 심지어는 제주도에서 테러사건이 발생한다면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대구에서 개최되는 대회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대회를 앞두고 테러안전대책의 주요 관심지역은 물론 대구지역이 되겠지만 과급효과가 광범위한 테러의 영향력을 감안한다면 테러안전대책의 범위는 한반도는 물론이고 핵발전소 사고로 예측불허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의 테러발생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1.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

북한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는 대북 강경정책에 반발, 천안함 폭침사건 및 연평도 포격사건을 자행하였을 뿐 아니라 핵무기 등 핵물질확산을 획책하고 있으면서 이번 대회기간 또는 대회를 앞두고 대북 강경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에 심각한 타격을 주기 위한 대회 방해책동이 예상된다.

동시에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세계최고의 화생방 무기에 의한 공격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바, 특히 일본 핵발전소 방사능 물질의 무차별적인 확산을 경험한 세계인들의 화생방에 대한 우려는 약간의 사용 가능성만으로도 대회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수 있음을 예상해야 한다.

2. 국내 자생적 테러리스트에 의한 공격 가능성 증대

지난 5월12일 발생한 서울역과 강남고속버스터미널의 사제폭탄 폭발 사건은 앞으로 테러모방 범죄의 상징적 의미가 있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으며 앞으로 모방범죄 발생 여부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예상되는 폭탄테러의 시초가 될 수 있을 정도의 영향력 확산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은 사건 유발 동기가 단순히 주식폭락을 유도하여 옵션투자에서 일확천금을 노리는 정도의 유혹만으로도 비전문가가 인터넷에서 사제폭탄 제조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20여만원 정도의 비용으로 한시간여만에 쉽게 사제폭탄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는 앞으로 다양한 형태의 국내

자생적 테러리스트들의 활동가능성을 예상케 해주는 상징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대비한 대책을 심도있게 강구해야 될 것이다.

특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행되어지는 폭력행위를 테러리즘이라고 정의한다면 최근 들어 다양한 형태의 소외계층 및 불만세력과 사회반체제 세력들뿐만 아니라 많은 합법·불법체류 외국인들이 활동범위를 넓혀가고 있는 현시점에서 그들이 강력하게 자신들의 의지를 표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간단한 형태의 사제폭탄 이나 사제 무기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은 거의 확실하다고 할 수 있음.

비록 폭탄테러가 조악하고 폭발력이 낮은 간단한 형태의 테러무기로 시작하고 있지만 조직적인 국제테러단체와 연계될 경우 우리나라 사회 전반에 커다란 위협을 가져다 주는 테러 발생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으며 이번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서 전 세계인들이 주시하는 가운데 자신들의 정치적 혹은 기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생적 테러리스트들에 의한 테러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을 다양하게 강구해야 할 것이다.

3.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둔 정치적 불안 요인 증대

최근 국내 정치동향은 근래에 보기 드물게 좌우 이념대립 성향이 격화되고 있는 것을 지적할 수 있으며 정치적 중요시기를 맞아 국제대회를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고자 하는 일부 세력들에 의한 대회 방해책동 가능성에도 대비 필요하다고 하겠다.

4. 일본 핵발전소 사고에 따른 방사능 물질 국내 유입 가능성 대비

국제적으로 일본 방사능 유출에 대한 불안요인은 상당한 실정이므로 만에 하나 일본의 방사능 물질이 국내 동부에 위치한 대구지역 혹은 국내 전역에서 미세하나마 발견된다면 대회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안전대책기관에서는 이에 대비한 對화생방 전략을 종합적으로 심도있게 준비해야 할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 있는 2003년도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시 화생방 안전대책을 넘어선 원자력 안전기구를 포함하면서 대구지역에만 국한된 화생방 안전대책이 아니라 국내 전반에 걸친 안전 대책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5. 주한미군의 고엽제 매립 문제 등을 이슈화하는 반미시위 격화 가능성

미국 소고기 수입확대와 관련하여 광우병 파동으로 정점을 찍었던 반미시위가 최근 발생한 대구 세계육상선수권 대회장 인근의 경북 칠곡 미군부대 내에 1978년 당시 고엽제 250드럼을 매립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국제스포츠 행사를 반미시위의 기회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에 의한 반미시위가 격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반미 시위가 격화될 경우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의 촛불집회 정도까지 확산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면서 이번 고엽제 매립 사건의 향후 전개과정에 대한 면밀한 추적 분석과 함께 대회에 미칠 영향의 정도에 대해 분석을 주의 깊게 해야 할 것이다.

6. 본격화 하고 있는 디지털(사이버) 테러

2009년 7월7일 DDos공격에 이어 2011년 3월4일의 DDos공격 뿐만 아니라 4월12일의 농협에 가해진 사이버테러는 검찰수사결과 북한의 소행이라는 발표가 있었으며 농협에 대한 사이버테러는 최초의 북한이 저지를 사이버 테러라는 점에서 앞으로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사이버테러가 예상되는 바, 이번 대회를 겨냥한 사이버테러의 가능성 배제 불가능한 상태

7. 알 카에다의 보복 차원에서의 테러 가능성

오사마 빈 라덴의 사망 이후 보복을 노리는 알 카에다에 의한 대회 방해 목적의 테러자행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에 대비한 관계기관들의 공조체제가 절실

IV.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대비 테러안전대책

이미 대구는 2003년 하계유니버시아드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험으로 대테러안전대책에 있어서 일정 수준의 역량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며, 이번 대회를 앞두고 세밀한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므로 각론적 차원에서의 대응방안 보다는 금번 대구대회 뿐 아니라 평창 동계올림픽, 인천 아시안게임 등 대규모 국제스포츠대회에 대비한 근본적인 대안 마련을 모색하였다

1. 우선 테러에 대비하기 위한 법적 근거 확립을 지적할 수 있다

테러방지법은 그 제정의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의 권한남용 등의 이유로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의 반대로 표류하고 있다

그렇다면 보다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정원이 대테러활동의 주체가 되는 것에 대한 관점의 전환 시도 방안도 하나의 해결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테러방지법의 제정은 어느 정권이 집권한다 해도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그 주체가 국정원이어서는 안된다는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의 극력반대가 존재한다면 국가대테러기능을 관장하면서 동시에 국가중요행사를 주도하는 기관의 신설 문제를 심각하게 논의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³⁾. 일부에서 제기하는 미국

3) 이만중 한국테러학회 회장은 지난 2010년 11월에 개최된 한국테러학회 하계학술세미나에서 비슷한 이유로 가칭 “테러방지청” 신설을 주장하였다.

의 국토안보부 기능과 같은 정부기구의 구성은 좀 더 생각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전 세계 테러 집단의 공격목표이며 테러위협으로부터 미국본토를 방어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절실한 만큼 우리나라와 비교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대규모 국제스포츠행사에 대비한 법적근거 확립을 위해서는 스포츠안전관계법에 대한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지금까지는 대규모 국제스포츠행사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로는 지원법적인 한시법에 그쳤으나 이를 상시법으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스포츠관계법 개별법상에 부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스포츠안전규정을 모아서 하나의 법률로 제정하여야 한다.

동시에 사이버테러에 대비한 법적 근거 확립이다. 2008년 10월에 공성진의원이 발의하였으나 제정되지 못하고 있는 가칭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 법안 역시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대로 제정이 지연되고 있다. 디도스공격, 농협 사이버테러에서 보듯이 국가주요기관과 민간기관 조차도 사이버 공격에 속수무책이었으며 앞으로 북한을 비롯한 테러단체들에 의한 사이버 테러는 지속될 것이며 강화될 것이 예상되므로 이 법안 역시 어떠한 형태로든 제정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하지만 위에서와 마찬가지로 국정원의 민간사찰을 우려하고 국정원의 권한 비대화를 우려하는 것이 제정 반대 이유라면 새로운 국가대테러 기구를 설립하여 사이버테러를 포함하는 국가대테러 기능을 통합하는 것을 고려해도 될 것이다. 더 이상 법률이 아닌 대통령 훈령으로 국가대테러 대책을 강구해야만 하는 국가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2. 두 번째로 테러안전대책과 관련된 기관간의 정보공유이다

이미 2010년에 G20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개최했으며 2012년의 핵안보정상회담(가칭 G50)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또한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앞두고 미국이 9.11 사건 이후 교훈사례에서 원인 중의 하나를 정보기관간의 정보공유 실패를 지적하고 정보기구간의 협조를 강화하는 국가정보국장(DNI,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의 신설은 좋은 예라고 하겠다.

이미 수 차례에 걸친 대규모 국제대회를 무사히 치렀으므로 정보기관간 정보공유는 성공적이었다고 지적할 수도 있겠지만 미국이 9.11사건 이전에 정보기관간 정보공유가 안되었다고 하였는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만큼의 국제회의 및 대회를 치렀음에도 무사히 치렀고 대규모 테러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에는 기관간 정보공유에 문제가 없었다고 하였음에도 9.11사건은 발생했으며 사건 이후에 정보기관간 정보공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한 것이었다. 청와대, 국정원, 경찰, 군, 기타 정부부처는 정보공유에 있어 기관간의 이기주의를 버리고 정보공유를 법제화하여야 하며, 정보공유 실패시 담당기관 및 해당 직원에 대한 법적 처벌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3. 세 번째로 안전관련 자원봉사자와 민간경비의 활용강화 방안이다

안전자원봉사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이며 반복적인 대테러교육 차원으로까지 훈련시켜 이들을 準대테러요원화 하여야 할 것이다. 단순히 봉사차원이 아니라 전문가적 차원으로 까지 강도 높은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하여 안전자원봉사는 security와 관련이 있거나 이러한 교육을 기꺼이 받겠다는 의지가 있는 시민들을 면접을 통해 선발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매번 지적하는 것이지만 점차로 민간경비의 활용도를 높이려는 것이다. 공경비에서는 민간경비의 수준이 미흡함을 지적하면서 국제대회에 민간경비를 도입하는 것을 꺼려하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민간경비는 수준의 문제도 있지만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하여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이유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규모 국제대회에서 국가가 일정 비용을 지불하여 국가행사에 민간경비의 참여를 조금씩 점차적으로 늘려나간다면 점차로 민간경비의 수준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갈 것이고 이는 결국 우리나라 전체의 security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눈앞의 비용을 염려하고 효과성을 이유로 민간경비의 수준이 미흡함을 지적하면서 민간경비를 안전부분에 동원하는 것을 배제시키는 것 보다는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외곽의 중요도가 덜한 부분부터 참여시키면서 조금씩 민간경비 수준을 향상시키는 거시적이면서도 국가적 차원에서의 전략적 접근이 절실하다

4. 네 번째로 국민과의 소통강화이다

일방적인 대회조직위원회의 홍보활동으로 국민과의 소통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이는 진정한 소통이 될 수 없을 것이다.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리고 국민이 대회의 주인이라는 의식이 들 때 진정한 소통이라고 할 것이다. 대회에 임박해서 집중적인 TV홍보광고를 통해 국민과의 소통을 완성했다는 기존의 형식에서 탈피하여 위에서 지적한 민간경비를 활용하고 국민이 직접 테러 안전요원이 된다는 소통방법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V. 결 론

현대 사회의 특성상 한 국가에서 테러가 발생하여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다면 그 국가가 입는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 정도가 되고 있다. 특히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에서 테러가 발생한다면 피해의 정도를 최소화 시키면서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테러사건으로 인한 후유증을 극복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와 같은 작은 규모의 국가이면서도 수출주도형 국가에서는 테러사건으로 인한 피해규모는 복구하기까지 걸리는 시간과 노력이 엄청나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에 뒤처지는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미 북한의 위협이 국가신인도에 일정부분 피해를 입히고 있는 상황에서 테러의 발생은 정치경제적으로 그 영향이 견잡을 수 없을 정도로 번져나갈 것이고 그 피해는 온전히 국민들의 몫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는 절대 테러가 발생하여서는 안 된다. 테러안전대책과 관련이 있는 부서는 절대로 국민들을 배신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해서는 부처이기주의를 극복하여야만 한다. 이는 절대적 사명이다.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법제도화에 있어서 국민들의 인권 침해요소가 있다면 법제화 과정에서 얼마든지 절충이 가능한 것이고 정치적 이유로 테러와 관련된 법률 도입을 막는다면 이는 결코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여야는 서로 머리를 맞대고 심사숙고와 타협의 거쳐서 테러의 위협에서 벗어나 국민들이 안심하게 살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것은 정치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의무인 것이다. 국가안보에서 여야의 구분은 있을 수 없다. 물론 법제정에 앞서 테러관련 법률 추진과 관련된 부처는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법규 조항을 미리 살펴보고 국민들이 염려하는 바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이러한 작업은 부처의 업무편의주의적 측면이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어느 누구도, 어느 국가도 테러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 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성공적 개최는 테러안전대책의 성공여부가 좌우할 것이다. 국민과 정부부처 모두의 합심 노력이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국가정보원. (2003). 「2003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안전활동 결과」
- 김두현. (2011). 대규모 국제행사의 경호안전관계법 발전방안. 「한국경호경비학회 하계학술세미나」. 95-139
- 윤민우. (2011). 「테러리즘의 이해와 국가안보」. 서울: 진영사.
- 이창용. (2007). 「뉴테러리즘과 국가위기관리」. 서울: 대영문화사.
- 주일엽 (2006). 국제스포츠대회 안전활동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최진태. (2006). 「테러리즘이 이론과 실제」. 서울: 대영문화사.
- _____. (2009). 「국가안보와 대테러전략」. 서울: 대영문화사.



발표 2

국제행사의 성공개최를 위한 경찰의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김 용 현(영남이공대)

<목 차>

I. 서 론	IV.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경찰의 지원방안
II. 국제행사의 개념 및 안전관리대책의 중요성	V. 결 론
III. 국제행사의 안전관리 사례	

I. 서 론

최근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이 높아짐에 따라서 체육, 예술, 문화의 각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의 행사가 지역별로 개최되고 있다. 이러한 행사 중에서는 민간기업의 수익성 행사도 있지만 국가 혹은 지방정부, 국제기구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국제적인 행사도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다양한 국제행사를 개최하여 왔으며, 국제적 관심이 집중된 것으로 1986 아시안게임과 1988 서울 올림픽, 2002년 월드컵, 2003년 대구유니버시아드대회, 2010년 G20 정상회의 등이 대표적이다.

올 해에는 대구광역시에서 2011년 8월 27일부터 9월 4일 까지 약 9일 동안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제육상경기연맹(IAAF)이 주관하는 세계육상선수권대회는 1983년 핀란드 헬싱키에서 처음 개최된 이래 오늘날에 이르고 있으며 제13회 대회이다. 세계육상경기대회는 그 규모 역시 상당한데, 대회에 참가하는 회원국이 212개국으로 국제연합(UN) 회원국보다 많다. 즉, 세계 정상급 선수 2,000여명, 임원 1,500여명, 기자단 2,500여명 등 총 6,00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며, 전 세계 65억 명 이상이 TV중계를 시청하는 등의 규모가 큰 국제대회 중의 하나이다(세계육상선수권대회 홈페이지, 대회소개, http://www.daegu2011.org/do/front/page/championship_info?lang=kr).

이와같이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는 세계의 중심국가로서 위치를 확보하고 자국의 경쟁력을 높이는 등 국가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으며, 개최국가나 개최도시의 브랜드 제고와 자국상품의 홍보효과가 자연스럽게 확산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자국의 경영·투자환경을 널리 홍보하

여 외자유치 효과가 발생하게 되고 더불어 다양한 문화행사를 통하여 자국의 문화를 세계에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됨으로써 더욱 많은 관광객들을 방문케 하는 등 부수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이선기, 2007, 69). 이에 세계 각국은 국제행사를 유치하려고 국가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국제행사의 유치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국제행사를 안전하게 마무리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성격이 유사한 1988년 서울올림픽과 2002년 FIFA월드컵을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또한 지난해에는 세계의 정상들이 모이는 서울G20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험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에 낙관하지 말고 지난 국제행사에서 미흡한 점을 다시금 되짚어 보고 성공적으로 이번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치루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사실 최근 우리나라의 상황은 북한의 잦은 도발로 인하여 국민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리비아 사태 등 불안정한 정세가 지속되고 있다. 또한 국내외의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천재지변 역시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에 장애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빈라덴이 사살됨으로써 알 카에다가 미국 및 우방국에 대하여 테러리즘을 가할 것을 경고함으로써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이와같이 다양한 위기상황 속에서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체계적인 준비를 통하여 대회를 안전하게 개최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경찰의 역할과 지원방안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이 연구는 1988 서울올림픽과 2002년 FIFA월드컵, 그리고 서울G20정상회의에서의 경찰의 활동상황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국제행사에서 요구되는 바람직한 경찰의 지원방안을 논하고자 한다.

II. 국제행사의 개념 및 안전관리대책의 중요성

국제행사는 일반적으로 “5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100명 이상의 외국인이 참여하는 국제회의, 체육행사, 박람회, 전시회, 문화행사, 관광행사 등”으로 정의된다(국무총리훈령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 제391조). 이러한 국제행사는 국가 간의 화해와 질서를 회복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국제적으로도 자국의 위상을 가늠할 수 있는 주요영역으로 정치, 경제, 외교, 문화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즉,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면 개최국가, 개최도시의 브랜드 제고와 자국 상품의 홍보효과가 자연스럽게 확산된다. 또한 자국의 경영 및 투자환경을 널리 홍보하여 외자유치효과가 발생하게 되며, 행사기간 중 자국의 다양한 문화를 자연스럽게 세계에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관광객 유치에도 효과적이다.

이를 반영하듯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율을 1988년 서울올림픽 전과 후로 구분하였을

때, 약 2%에서 약 10%로 성장하였으며, 국민소득 역시 4,040달러에서 5,500달러로 증가하였다(뉴스미션, 2008년 8월 9일, 20년 만에 둘러보는 서울올림픽의 추억, <http://newsmission.com/news/2008/08/09/1514.24235.html>). 그리고 2002년 월드컵 대회가 성공적으로 유치되고 나서 대한민국 국가브랜드가 상승하였다는 보도는 국제행사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의 효과가 얼마나 큰가를 가늠하게 한다(신승일, 월드컵과 국가브랜드, 한국일보, 2010년 5월 31일, <http://news.hankooki.com/lpage/opinion/201005/h2010053113305181920.htm>).

이처럼 국제행사의 긍정적 효과를 향유하고자 세계 각국은 적극적으로 국제행사의 유치경쟁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국제행사의 유치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성공적이고 안전한 행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오늘날 세계는 새로운 양상의 대립과 자국의 경제적 우위확보를 위한 보이지 않는 대립으로 인해 많은 불안요소를 파생하고 있는데, 그 중 가장 큰 불안요소 중의 하나는 세계 정상들과 주요인사에 대한 무차별적 공격을 특징으로 하는 테러리즘이다(이선기, 2007: 70). 이러한 불안요소는 세계 각국의 정상 혹은 주요인사 등이 많이 참여하는 국제행사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요소가 된다.

따라서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활동에 대한 대비, 즉 안전관리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안전관리대책은 행사개최국 내·외부에 산재한 인적·물적·지리적인 취약요소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행사장 내·외곽 시설물에 대한 폭발물을 탐지하여 제거하며 안전을 점검하고, VIP와 행사참가자 그리고 관람객에 대한 신변을 보호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이다(김두현, 2001: 280-282). 이것은 어떠한 행사든지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안전이 우선되어야 하며, 모든 행사의 운영은 안전이 전제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국제행사에 있어서 안전관리대책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중요성이 강조된다고 한다(최응렬, 2004: 22-23).

첫째, 안전확보가 최대의 서비스이다. 모든 사람들에게 인기있는 스포츠라 하더라도 사고·전쟁·질병·무질서·테러 등 생명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해방되려는 안전욕구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로 가장 우선시되는 것이다. 특히 올림픽이나 월드컵, 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같은 국제스포츠 행사의 안전관리대책에 있어서는 safety(산업안전·생활안전), security(경호·경비), service(친절·봉사)가 포함된 광범위한 안전이 요구된다.

둘째, 안전한 행사개최는 국가간의 관계증진은 물론 세계평화와 인류화합에 중대한 진전을 이룰 수 있다.

셋째, 안전한 행사의 진행은 경제난 극복과 경제안정을 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올림픽 등 국제적 행사의 성공적 개최는 경제적인 기대효과는 물론 미디어 가치의 극대화로 국제무대에서 개최국의 이미지가 제고되고 사회통합과 국민적 화합을 다질 수 있는 수치로 계산할 수 없는 긍정적 효과가 발생한다.

넷째, 행사장 질서유지와 VIP, 행사참가자, 선수, 관람객, 보도진 등의 신변안전보호를 통하여

국위선양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즉, VIP, 행사참가자, 선수, 관람객, 보도진의 생명, 신체에 대한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개최국 경호경비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알리고 국가의전적 차원에서 국위선양 및 국제적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다.

Ⅲ. 국제행사의 안전관리 사례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경찰의 지원방안을 살펴보기에 앞서 우리나라에서 이미 개최된 국제행사의 안전관리 실태와 경찰활동상황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이러한 국제행사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마찬가지로 국제적 스포츠 행사이며, 국제적·국내적으로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고 평가되고 있는 1988년 서울올림픽과 2002년 한·일 월드컵, 그리고 얼마전 세계의 정상들이 모인 서울G20정상회의를 중심으로 국제행사의 안전관리의 실태를 파악할 것이다.

1. 서울올림픽대회의 안전관리

1) 행사개요

1981년 9월 서독 바덴바덴에서 1988년 올림픽개최지로 서울이 결정된 이래로 세계의 이목이 집중될 것을 계기로 다양한 테러집단 등의 테러활동과 북한의 방해공작 등 테러의 위협은 증가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대외적으로 미국정보기관, 일본경찰청을 비롯하여 세계 24개국 35개 기관과의 대테러 국제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유지하였다. 또한 대내적으로 경찰청, 대통령경호실, 국가정보원, 외무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교통부, 관세청, 항만청 등 유관기관 간에 긴밀하게 정보를 교류하고 지원활동을 실시하였으며, 다양한 위해요인의 유입을 봉쇄하고, 테러를 예방하고 저지하며,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등 대테러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처럼 다각적인 노력을 통하여 성공적인 서울올림픽 개최에 기여하였으며, 이 결과 올림픽 기간 중에 국가정상급으로 구스타프 스웨덴 국왕, 사마란치 IOC위원장 등 10여 개국 정상들이 방한하였고, 행사기간 중 철저한 경호경비를 제공하여 완벽한 경호안전활동을 전개한 것으로 평가받았다(김정학, 2003: 43).

2) 경호환경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무엇보다 행사를 주관하는 기관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는 경찰 등 유관기관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관련된 첩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집하고 상호 기간간에 전달하는 것이 성공적인 올림픽개최의 관건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기존의 첩보수집 채널을 활용토록 하는 한편, 국내의 보안·정보기관, 해외공관의 첩보수집 기능을 강화하고 주한 외국공관, 외국 정보기관과의 정보교류를 확대하는 등 서울올림픽 안전관련 첩보수집에 노력하였다.

북한은 올림픽을 방해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해 행위를 계획하였기에 경찰은 이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였으며, 국제적으로 테러조직의 동향을 파악하는데 주력하였고, 이외에도 국내과격세력의 방해징후를 포착하고 이를 저지하였다. 또한 위·변조여권을 이용한 위해분자의 국내입국기도 등 각종첩보를 입수하여, 외무부, 내무부, 법무부, 국방부, 관세청, 올림픽조직위원회 등 안전관련 유관기관이 서로 협력하여 신변보호, 경기장 경비, 출입국관리 등 분야별 대책본부와 각 현장안전 본부에 적시 전파하여 테러분자의 침투와 국내과격세력의 방해책동을 사전에 예방·봉쇄하는 등 적절한 대처방안을 강구하였다.

이외에도 국내외 관계기관에서 수집된 국제 테러분자 신원자료 총 14,750명의 전산입력 관리체제를 유지함으로써 국내 입국기도 국제테러분자 7개국 20명 및 위·변조여권 소지자 7개국 13명을 적발하여 퇴거조치 하였으며, 대회관련 테러위해 인물 22개국 118명에 대해서도 별도의 안전대책을 강구하였다(김정학, 2003: 43-44).

3) 올림픽 대비 준비 및 관리현황

88 서울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관련 유관기관에서는 폭발물 사고대책을 강화하고, 협상팀을 비상대기 하였으며, 주요시설 목표를 분석하고 작전계획을 수립하고, 외국 안전지원요원을 체류케 하여 협조하는 등 다음의 노력을 전개하였다.

첫째, 폭발물사고 예방을 위해 시설별 취약개소 탐색활동으로 사전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안전검측 요원과 탐지견을 운용하였다. 그리고 폭발물 발견 시 현지에 출동하여 안전처리를 담당하는 폭발물처리팀과(EOD)과 폭발물사고 발생 시 사건현장 조사분석 임무를 수행하는 국가차원의 정부합동 폭발물사고 조사반을 편성·운영하였다. 이외에도 폭발물처리팀의 폭발물처리 전문능력 제고를 위한 올림픽 안전요원 폭발물 처리교육, 군·경 폭발물 처리요원 폭발물 전문교육, 미국 FBI 폭발물 전문요원 초빙교육 등 폭발물 전문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효율적인 폭발물 탐색 활동을 위해 외국산 우수폭발물 탐지견을 도입하였다. 이외에도 미국 CIA 전문교관을 초빙하여 탐지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기관별로 폭발물 탐지 및 처리능력 향상을 위한 폭발물 검색, 처리장비를 보강하였다.

둘째, 협상팀을 비상대기토록 하였다. 인질검거 테러사건이 발생하면 사건현장에 즉각 출동하여 대화를 통한 범인의 자수와 같이 사건의 평화적 해결을 유도하였다. 더불어 테러범의 심리를 분석하여 자문하며 테러범들의 언어권별로 통역을 지원하기도 하였다. 이를 통해 테러범과 대화를 시도하고 정보·첩보 수집전파 및 공격시기 등에 관한 조언으로 작전부대를 지원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협상조직을 편성·운영하였다.

한편 협상능력 향상을 위해 1987년과 1988년 유관기관 및 대테러 전 대응요소가 총동원되어 실시한 대테러 종합모의훈련에 참가하여 실제사건에 대비한 경험역량을 축적한 바 있다. 그리고 1988년 9월 1일부터 10월 5일 약 35일 동안 전 협상조직(협상전문, 협상실무, 통역전문)간에 비상연락체제를 확립함으로써 사건발생시 즉각 출동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주요시설 목표분석 및 작전계획의 수립이다. 테러사건이 발생할 경우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현장정보자료를 사전에 확보하였으며, 신속한 대응태세를 구축하기 위하여 행사유관기관별로 올림픽 경기장, 선수촌, 항공기 등 중요대상목표를 분담하여(98개소), 취약요소를 수집하고 예상테러 유형을 도출하여 대응대책을 수립하는 등 목표를 분석하고 작전계획을 수립하였다.

넷째, 외국인안전지원 요원의 체류 협조이다. 서울올림픽 기간 중 예상되는 테러위협에 공동대처하고, 전반적인 올림픽 안전업무를 협조하기 위하여 행사안전본부에서 외국 보안정보기관 대테러 전문요원 25명을 초빙하였다. 이들은 서울시내 호텔 등에서 체류하였으며, 기간중 분야별, 시설별 안전활동 관찰 및 취약요소 자문, 국가별 자국참가단 보호대책자문, 국제테러동향 및 올림픽 안전관련 첩보교류, 테러사건 발생대비 공조 협력체제구축 등의 임무를 담당하면서 우리나라의 안전에 관한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성하였다(김정학, 2003: 44-46).

4) 평가

서울올림픽은 약 5년여에 걸친 대회준비와 유관기관의 전문적이고 헌신적인 업무처리로 안전사고도 없이 완벽한 안전활동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성과는 과거 우리나라가 1986년 아시안게임과 각종 국제대회의 경험을 통해 전문적 업무처리 능력을 축적하였고, 유관부서 간의 효율적인 업무협조체제구축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또한 세부적으로 국외에서 인적·물적 위협요소 국내에 유입되지 못하도록 원천봉쇄한 것과 공·항만의 절대 안전을 확보하고 유지한 것, 대회 참가요인 및 선수단에 대해서 철저히 경호·경비를 제공한 것, 항공기 및 선박폭파와 피랍 등의 안전사고 방지하기 위해 종합적인 대테러 방책을 수립한 것 등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즉, 이러한 기본활동 방향을 토대로 각 유관기관들의 상호연계와 더불어 긴밀한 협조체제의 추진한 결과 성공적 개최로 평가되었다(김정학, 2003: 46).

2. 한·일 월드컵대회의 안전관리

1) 행사개요

2002년 한·일 월드컵은 역사상 처음으로 아시아대륙에서 개최된 대회이다. 특히 한국과 일본 2개국에서 공동개최하였기에 대회운영이나 국민들의 참여도, 경기결과, 치안대책 등 모든 것이 비교되어 한국과 일본 두 나라에 있어 중요한 대회였다.

따라서 경찰은 경찰청장을 위원장으로 ‘월드컵치안 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 월드컵대회의 경비·안전 관련업무를 심의·결정하였고, 2000년 1월 31일 경찰청에 월드컵기획단, 2001년 2월 경기가 열리는 10개 지방경찰청에 월드컵기획계를 편성하여 월드컵 전담부서를 조기에 창설 운영하였다(김성태, 김계원, 2004: 308-311).

2) 경호환경

대회전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02년 1월 15일부터 10개 월드컵경기장에 1,200명의 경비경력을 배치하였다. 또한 인천국제공항 등 11개 주요 공·항만에는 경력을 1,908명으로 증가하여 배치하였으며, 국가중요시설 434개소에 배치된 5,115명에 대해서도 검문검색을 강화하는 등 경계하였다. 또한 다중이용시설 등 테러대상시설 4,680개소를 선정하여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경기전까지 안전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리고 2002년 3월 20일 전국적으로 38,308명의 월드컵 전담경비대를 발대하여 개인별로 담당 임무를 부여하였으며, 기능별·분야별 교육훈련 체제로 전환하였다. 또한 홀리건 난동에 대비하여 홀리건 전담부대 30개 중대를 발족하고 지방청별로 최소 3개 중대 이상의 홀리건 전담부대를 지정하였다(신성식, 2008: 277-279).

3) 유관기관 준비 및 관리현황

월드컵 대회와 관련하여 동원된 경찰력은 대회기간 전(2002년 1월 15~5월 30일)과 대회기간(5월 31일~6월 30일)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167일 동안 연 1,911,963명(1일 평균 11,448명)이 동원되었다. 대회전 동원 경력은 사전 안전확보를 위해 10개 월드컵경기장에 배치된 시설전담부대와 주요 공항만(12개소)과 국가중요시설(434개소)에 배치된 경비경력이며, 대회전 국제미디어센터경비와 선수단 숙소, 연습장, 신변보호 등에도 경력이 동원되었다. 대회기간 중에는 기존 시설설비 경력 이외에 기본계획에 따라 분야별로 경찰력을 투입하였는데, 월드컵축구대회대비 예상경력을 약 42만여 명으로 추정하였으나 거리응원 등의 치안수요가 증가하면서 연 73만 여 명에 이르렀다(신성식, 2008: 278-279).

경찰과 관련 유관기관의 월드컵 대비 안전관리는 장비운용, 시설경비, 신변보호의 세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첫째, 장비운용과 관련하여 경찰은 대회기간중 경기장, 숙소, IMC, 연습장 등에 검색장비 27,451점을 비롯하여 총 43종 160,477점의 장비를 동원하여 운용하였다. 검색에 11종 27,451점, 통제에 8종 13,997점, 감시에 3종 6,180점, 통신에 5종 74,232점, 교통에 3종 5,640점, 대테러에 10종 15,272점, 기타 3종 17,760점이 사용되었다(신성식, 2008: 279-280).

둘째, 시설경비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열린 월드컵 32경기에 총 1,359,548명이 관람하였으며, 경

찰은 연인원 83,778명의 경력을 동원하여 경기장에 대한 안전경비활동을 수행하였다. 경호활동의 연장선상에서 경기 전 2회에 걸쳐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안전검측을 실시하여 경기장의 물적 안전상태를 확인하는 한편, 3선 경비개념을 바탕으로 문형금속탐지기를 도입한 4단계 검색체계를 적용하였다.

3선 경비는 제1선을 경기장내부와 관중석, 제2선은 경기장 건물 출입구, 제3선은 외부울타리 출입구로 구분하여 경비체계를 수립하였다. 그리고 4단계 검색체계를 갖추어 1차 검색선은 통제선으로 관계자외의 접근을 통제하고, 2차 검색선은 외부울타리 출입구로써 금속탐지기, 정밀검색을 실시한다. 그리고 3차 검색선은 경기장건물출입구로써 지정섹터, 이동동선을 파악한다. 4차 검색선은 관중석 출입구로써 좌석안내와 질서유지에 초점을 맞춘다(신성식, 2008: 280-281).

셋째, 신변보호와 관련하여 경찰은 신변보호대원을 조기에 선발하여 합동교육과 워크숍을 개최하고, 각 선수단별 경기 개최도시의 경기장, 호텔, 연습장은 물론 장소별 접근도로 등 이동구간을 현장답사하게 함으로써 신변보호 위해요소를 미리 파악하도록 하였으며, 종합모의훈련을 실시하여 현장대응 능력을 높였다. 그리고 첨단장비인 위치정보시스템과 디지털 안전무선망을 지급하여 실시간으로 위치확인 및 통신을 하였다.

그리고 지방경찰청별로 모터풀제를 운영하여 경력과 장비를 집중관리 하였으며, 선수단과 심판진은 전담 에스코트를 실시하였다. 즉, 안전을 최우선으로 대상차량의 선·후구 에스코트를 실시하고, 특히 테러의 위험이 있는 차량은 선선구 에스코트를 실시하였다(신성식, 2008: 280-282).

4) 평가

2002 월드컵의 안전관리에 있어서 경찰은 주어진 본연의 경비업무에는 상당히 충실하였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봉사서비스와 같은 그 외의 업무에는 부족함을 보였다. 그리고 경기장내에 배치된 경찰의 경우 비상시에 관련된 대처업무를 주된 업무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특정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평상시 관객에 대한 서비스 업무가 부족하였다.

그리고 경기가 끝난 후에 철수 및 재배치에 있어서 경기가 끝나면 관객중 일부가 필드에 진입하는 경우가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후 필드진입을 예방하기 위한 경력의 배치가 없었고 직문에 대기만 하였다는 문제도 도출되었다(김성태, 김계원, 2004: 326-327).

3.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의 안전관리

1) 행사개요

G20(Group of 20)은 선진 7개국과 신흥국가 12개국 그리고 유럽연합 의장국 등 세계주요 20개국을 회원으로 하는 최상위 경제포럼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사실상 세계경제질서를 주도하는 실질적인 협력체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재 G20은 에너지, 자원, 기후변화,

빈곤 문제에 이르기까지 글로벌 이슈를 포괄하는 핵심적 협의체로서 도약중이다. 우리나라에서 열린 G20회의는 G20을 정례화한 이후 실질적인 첫 회의로서 회의기간은 2010년 11월 11일부터 12일까지 2일간 개최되었다. 참가자는 25개국 정상 및 7개 국제기구 대표, 정부대표, 기자단 등 총 1만 여 명이 참가하였다(경찰청, 2011: 23-30).

2) 경호환경

2010년의 치안상황은 전반적으로 안정되었으나 대북위협으로 인한 긴장이 고조되었다. 북한은 2009년 화폐개혁을 단행하였으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였고, 경제사황이 악화되면서 북한이탈주민이 늘어나는 상황에 있었다. 또한 권력세습구도의 고착을 위해서 천안함 폭격 등의 도발도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북한의 위협과 더불어 국제적으로 아프간·이라크 등의 정세불안과 테러가 빈발하는 등 행사를 전후한 테러발생가능성도 있었다(경찰청, 2011: 37-41).

3) 유관기관 준비 및 관리현황

G20 정상회의와 관련하여 2010년 1월 경찰청에 21명으로 기획단을 설치하고, 정상회의 개최 전 경호경비 기본계획과 종합치안대책을 수립하였다. 또한 G20 정상회의 경호경비에 경찰공무원 2만 9천여명과 211개 상설부대가 동원되어 전체 경찰력의 40%가량이 직접투입되었다. 따라서 5만 여명에 이르는 경력을 운용하고 15,000여명의 타지방청 경찰공무원을 서울청으로 출장조치 하는 등 대규모의 경력을 운용하였다(경찰청, 2011: 227).

G20 정상회의의 관련 유관기관의 준비 및 관리현황은 장비운용, 시설경비, 신변보호의 세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첫째, 장비운용에 있어서 원활한 회의의 운영을 위해 경찰은 전통담당형 분리대를 비롯한 회의장 인원출입 통제용 자바라 출입문, PE드림 등 경호장비를 개선·제작하였다. 그리고 차량하부 사진을 자동으로 촬영하여 차량하부에 설치된 폭발물을 감지할 수 있는 장치인 차량하부검색기 등을 개발하였다. 더불어 GPS, CCTV 등 교통관제 설비와 무선중계기, 보조중계기, 이동식 중계기 등을 활용하였다.

둘째, 안전한 시설경비를 위하여 G20 행사장 경호는 관련시설 기초공사 단계에서 취약요소에 대한 안전활동을 토대로 3선 경호원리에 입각하였다. 그리고 행사장별 부책 경찰서 및 책임구역 설정하고 세밀한 현장답사를 통하여 경력·장비운용 등 경호경비 계획을 추진하였다.

회의장은 무역센터내에 위치하여 아셈타워, 트레이드빌딩, 백화점, 호텔, 도심 공항 등 11개 주요 건물로 구성되었으며, 지하에 대규모 쇼핑몰이 위치하고 있어 테러위해자의 잠입, 은거가 용이한 점 등 인적, 물적 취약점이 많아 2010년 5월부터 전담부대를 배치하였다. 그리고 10월부터는 안전유지 경력을 단계별로 배치하였으며, 회의장 주변에 PE방호벽, 녹색펜스를 활용한 인원 및

차량 통제선을 운용, 비인가자 출입통제와 차량강습에 대비하였다. 특히, 출입자의 신속, 정밀한 신원확인 및 물품검색을 위해 출입통제 시스템과 X-Ray 검색대를 동시에 운용하여 제반 위해요소의 접근을 철저히 차단하고 회의장 주변을 경호안전구역으로 설정하여 안전을 강화하였다.

정상숙소는 서울내 특급호텔에 다수의 정상이 투숙하고, 양자회담 등 개별행사가 수시로 개최되는 점을 감안하여 안전구역을 확대설정하고, 책임경호경비를 위해 숙소별 부책서장을 지정·운영하였다. 또한 정상투숙 기간 중에도 호텔 부대시설의 정상영업을 보장하는 한편, 불필요한 출입문을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참가자, 일반이용객, 종사자별 전용출입구 지정과 함께 인원, 차량 통제선을 설정하고 운영하였다.

공항은 외국정상을 처음으로 맞이하는 관문이고 테러에 취약한 점을 감안하여 수시안전점검 등 사전 안전활동을 강화하였고, 단계적으로 계류장, 청사, 지하철, 다중이용시설에 경호경력 및 대테러 근무자를 배치하였다. 또한, 공항공사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청사외곽 진입로에는 임시검문소를 설치하여 인원과 차량에 대한 검색을 실시하였다.

리셉션 및 환영 만찬장(국립중앙박물관)은 관람객을 가장한 불순분자 잠입이 용이하고 각 국 정상 이동구간이 노출되기 쉬워 행사당일 임시휴관을 통해 일반인 접근을 제한하는 한편, 주요시설 및 주변 취약요소에 대한 경력배치로 안전을 확보하였다.

환송만찬장(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은 행사장 주변 삼성역, 코엑스, 백화점 등 단지내 건물이지하로 연결되어 불특정 다수인의 접근이 용이하고 주변 직시고층 산재 등 취약요소에 대비하여 출입구를 단일화 한 후 출입통제 하였고 차량검문소,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안전을 확보하였다.

배우자 행사장은 11월 11일 ~ 12일 양일간 오찬 및 관람 등으로 다수 행사장에서 진행되었다. 사전 안전유지를 실시하여 위해요소 접근을 차단하였고 행사당일에는 임시휴관을 통해 일반인의 접근을 제한하는 한편 이동 동선 위주로 여경을 배치하였다.

Business-Summit 행사는 G20 정상회의의 첫 공식행사인 점을 감안, 9월부터 월 2회 경찰자체 안전점검 및 월 1회 유관기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행사장 안전을 조기에 확보하였고 단계별 안전유지 경력을 배치하였다(경찰청, 2011: 95-124).

셋째, 행사관련자의 신변보호는 경호처와 긴밀한 협조하에 진행되었다. 정상들의 개별일정은 정상회의, 정상만찬 행사와는 달리 예상되지 않은 경호행사가 대부분이므로 변동성있고, 사전에 비 경력과 장비를 미리 확보하여 순간적으로 변화하는 경호상황에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경찰은 경호처에 파견된 경찰 근접 수행팀과 상호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개별일정 변화여부를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경력대비를 하였다. 그리고 같은 시간대에 수회의 경호행사가 중복될 경우에 대비하여 정교한 타임테이블과 체크리스트를 사전에 작성하여 체계적 상황유지 시스템을 구축하였다(경찰청, 2011: 115).

4) 평가

G20정상회의와 관련하여 경호안전 확보와 시민불편 최소화라는 두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였으며, 평화적 집회시위 분위기 조성 및 적극적 홍보를 통한 자발적 시민협조를 유도하였다. 또한 경찰주도의 대테러 현장활동과 안전을 확보한 점, G20특별법 제정을 통한 경찰경호경비활동에 대한 명확한 법적근거가 마련된 점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추후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등 대규모 국제행사가 이어짐을 고려한다면, 국제행사 대비를 위한 상설기구의 설치도 필요하다.

또한 대규모 국제행사를 앞두고 국정감사, 인사발령 등이 기존대로 실시됨으로서 관련준비에 인력과 시간이 소요됨을 고려하여 가능한 축소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경찰청, 2011: 15-20).

IV.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경찰의 지원방안

1. 사전안전관리 및 행사지원 시스템의 구축

성공적으로 국제행사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안전에 위협을 주는 요인이 발생했을 때 즉응적으로 대처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에 앞서 위해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제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경찰은 국제행사 개최 이전에 유관기관 합동점검반 안전점검과 행사장 전담 부대의 배치, 공항의 보안검색 강화, 숙소의 안전점검, 지하철 등 교통관련 주요시설의 순찰 등 사전안전 활동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즉, 행사장 주변으로 위험물 취급업소의 현황이나 불법체류자 거주지 현황, 테러 위험인물의 입국여부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위험물 취급업소나 불법체류자 등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테러 위험 인물의 입국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공항 내 입·출국장 근무 경찰공무원을 증원배치하고, 금속탐지기에 검색되지 않는 플라스틱 흥기류에 대한 정밀검색 등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사전에 경찰의 행사지원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지원 시스템을 통해서 필요한 경찰력의 범위와 장비수급, 행사를 대비한 교육훈련 등이 체계적으로 구성될 수 있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다양한 국제행사를 경험하면서 88서울올림픽에는 5년여에 걸친 준비기간을 거쳐 ‘행사안전본부’를 임시적으로 설치하여 운용하였으며(김정학, 200: 46), 2002 월드컵 때에는 2년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경찰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월드컵치안 대책위원회’를 설치한 바 있다(신성식, 2008: 277-278). 그리고 2010년 11월에 열린 G20 정상회담에서는 2010년 1월 경찰청에 21명으로 기획단을 설치하고 종합치안대책을 수립한 바 있다.

이처럼 국제행사에 있어서는 경찰을 중심으로 행사지원 시스템이 구축되어 군, 국가정보원, 소방, 지하철공사, 공항공사, 해양경찰, 국제경찰 연락관실 등 외국경찰기관 등과 같은 유관기관의 협력을 바탕으로 체계적 안전대책이 수립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행사지원 시스템은 임시적 기구라는 점에서 국제행사 안전개최의 연계발전이 미흡한 측면이 있다.

지금까지 국제행사시에 행사대비를 위한 기획팀과 같은 형태의 시스템은 행사에 대한 일회성 대비로 그칠 가능성이 크며 이렇게 될 경우 기존의 노하우와 안전대책의 발전성이 단절될 우려가 있는 것이다(경찰청, 2011: 19). 앞으로 우리나라는 2011년 대구에서 개최될 세계육상선수권 대회는 물론 2012년 핵안보 정상회의,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등 대규모 국제행사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따라서 지속적인 자료축적 및 안전대응기법에 관한 깊이있는 연구와 발전을 토대로 전문적 인력양성을 위해 행사지원 시스템을 상설화 시킬 필요성이 있다.

2. 요인에 대한 체계적 경호안전대책의 수립

오늘날 한국은 국제테러위협과 북한의 의도적 도발위협, 행사에 영향을 주는 불법집회시위 등이 우려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최되는 국제행사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관련시설 기초단계에서부터 취약요소에 대한 안전활동을 토대로 3선 경호원리에 입각한 경호경비와 함께 행사장별 책임경찰서 및 책임구역을 설정하고, 세밀한 현장답사를 통하여 경력 및 장비운용 등 경호경비계획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행사가 열리는 장소의 위치, 면적, 시설규모 등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행사장의 접근성, 위협자의 잠입 및 은거 용이성 등을 파악하여 안전유지 경력과 방호벽 등의 통제선, 출입통제 등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더불어 행사장 주변의 호텔 등 숙소에 있어서도 정상영업을 보장하면서 불필요한 출입문을 폐쇄하고, 참가자와, 일반이용객, 종사자별 전용출입구 지정 등을 고려해야 한다.

국제행사의 안전한 개최와 마무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행사참가자, 요인 등에 대한 완벽한 경호가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행사장, 회의장, 숙소 등에 대한 철저한 경호경비가 요청된다. 특히 숙소에 있어서는 숙소의 정상영업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불필요한 출입문을 폐쇄하고, 참가자, 이용객, 종사자별 출입구 지정과 함께 인원, 차량 통제선을 설정 운영할 필요성도 있다.

우리나라는 2011년 2월 16일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에서 괴한들이 침입한 적이 있어서 요인에 대한 경호경비가 소홀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서울신문, 2011년 2월 21일 31면). 따라서 경찰은 민간경비업체와 더불어 요인에 대한 철저하고도 체계적인 경호안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사전에 경호장비업체와 수주계약을 체결하여 장비의 부족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호신장비, 검색장비, 기동장비, 통신장비, 감시장비, 방호장비 등 경호상 필요한 다양한 장비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의 여부도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장비를 사용하는 인력 즉 경찰공무원과 민간경비요원들

이 사용법을 제대로 숙지하고 훈련이 되어야 한다.

3. 신속한 이동 및 테러 방지대책 마련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행사장 주변의 교통관리가 중요하다. 행사관람을 위해서 많은 관람객이 집중될 것을 예상하여 행사개최 기간동안 자동차의 부제운영과 대중교통 이용을 독려할 필요가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국제행사 개최 전·후의 교통상황을 파악하여 교통이 혼잡한 시간에는 도로를 가변운용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또한 국제행사 관람을 위해서 각국의 정상 등 귀빈이 방문을 함에 있어서는 모터cade 제대를 편성하여 완벽한 에스코트를 준비하여야 한다.

이외에도 스포츠와 같은 국제행사시에는 선수와 귀빈 그리고 관람객의 분리가 필요하며 경기장 입·출시의 전용도로를 운용할 필요도 있다. 많은 인원이 행사장 주변으로 몰리게 되면 다양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초대된 귀빈의 안전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행사장 출입구를 단일화 하고, 구역마다 분리하여 혼란이 없도록 관리할 필요도 있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국제행사기간에는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기에 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대비 역시 필수적이다. 따라서 대테러 경력을 지하철에 집중배치하고 도시기반시설에도 경력을 배치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비교적 테러가 잘 발생하지는 않으나 86 아시안 게임 1주일 전 김포공항 국제선 테러, 88년 서울 올림픽 전 KAL기 납치사건, 02년 한일 월드컵 3·4위전 직전 제2연평해전 도발 등이 발생한 사례가 있기에 더욱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경찰청, 2011: 149).

그리고 최근 인터넷을 중심으로 일반인이 쉽게 제작할 수 있는 폭발물 제조법이 만연되고 있으며, 이를 학습한 일반인이 서울역과 고속터미널을 중심으로 폭발물 실험을 한 바 있다(매일경제신문, 2011년 5월 17일 화요일, "서울역 '사제폭탄', 주가조작 노린 범죄",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1&no=307271>). 이러한 사례와 더불어서 최근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테러리즘의 경향은 과거와는 달리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광범위한 폭력행위가 주류이다. 따라서 다중이 많이 모이는 국제행사는 언론과급력이 크고 막대한 공포를 조성할 수 있기에 테러범의 표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경찰은 테러방지대책 마련과 더불어 테러발생이후의 대응에 대해서도 대비하여야 한다.

국가행사가 있을때마다 경찰은 대테러부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단계별로 계획을 세우고, 모의훈련과 전문화 교육을 시행하였으며, 테러에 대비한 장비를 보강하고 현대화하였다. 이처럼 경찰은 조직내에서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서 테러예방대책과 대응대책을 강구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특히 테러와 같은 광범위한 피해를 발생시키는 재난의 경우에는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갖추어 연습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테러상황 발생 시 경찰력만으로 대처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경찰과 소방, 행정기관과 병원 등 다양한 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계를 이루어 경찰이나 소방에서 피해자를 구조하면 바로 병원으로 연계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찰

은 테러방지대책을 강구함에 있어서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예방책과 대응책을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재난발생시 국민들이 혼란을 느끼지 않고 신중히 대처할 수 있도록 홍보할 필요가 있다. 사실 우리나라에는 큰 재난이나 테러리즘의 피해가 적기 때문에 재난에 대비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낮으며, 대피요령이나 대피소 등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 국민들도 거의 없다. 따라서 형식적으로 필요성을 강조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공영방송을 통해서 그리고 각 행사장별 안내방송이나 홍보부착물, 경찰 등 안전요원을 통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대응요령을 안내할 필요성도 있다.

4. 불법집회시위에 대한 조기 대응

민주주의 사회에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집회시위가 활성화 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최대한 보장되고 있다. 민주적 집회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나 불법폭력시위에는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사회의 안전을 보장해야 하는 것이 경찰의 역할이다. 국제행사시에 이러한 불법폭력시위가 발생한다면 시민들과 행사참여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거니와 치안부재국가라는 오명을 쓸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불법폭력집회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민주적 집회에 있어서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경찰은 2002년 한일 월드컵이라는 국제행사를 치르면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왜냐하면 월드컵 기간인 2002년 5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고된 총 집회건수 1만 599건 중 경찰청이 금지통고한 집회는 391건이었으며, 이는 신고대비 3.7%에 달한다. 반면 2001년 같은 기간에는 7607건중 108건으로 1.4%에 불과하였기 때문이다(동아일보, 2002년 7월 23일, 원권위 월드컵때 집회시위 자유 침해). 사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질서있고 안전한 국제행사를 기획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국제행사를 통해서 여론을 조성하고 의사를 전달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제행사시에는 평상시보다 집회와 시위가 많이 신고되기도 한다.

생각건데 중요한 것은 경찰이 시민들로 하여금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집회시위 문화를 조성하도록 홍보하는 것이다. 즉, 기본권인 집회와 시위를 최대한 보장받기 위해서는 국민 스스로 권리를 누릴수 있는 건전한 합법적 시민의식이 우선될 필요성이 있다. 더불어 경찰은 불법 집회 및 시위에 대처하기 위해 경찰장비를 개발하고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관련 세계 각국은 다목적 발사기에 빅백탄(미국), 고무탄(영국)을 사용하거나 접촉하지 않고 다중을 해산시키기에 용이한 지향성 음향장비(미국, 캐나다)를 도입하고 있다. 또한 독일, 덴마크, 미국, 영국, 이탈리아 등은 행사장소를 요새화하기 위한 철제펜스를 사용하기도 한다(경찰청, 2011: 186-187). 이와같이 우리나라의 경우도 건전한 집회 및 시위정착을 위한 홍보를 활성화시킴과 동시에 불법집회에 대한 엄중한 대처를 위한 장비의 개발과 보급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본다.

5. 치안공백에 대비한 협력체제 구축

국제행사가 열리는 지역의 경우 대부분의 경력이 행사의 안전활동에 투입이 되면 민생치안의 공백이 우려된다. 따라서 민·경 협력치안의 활성화와 더불어 행사기간 중 지역경찰의 2부제 근무 전환, 인근 지역의 경찰동원 등 치안인력의 확보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범죄예방을 위해 경찰서별 행사지역의 범죄발생통계를 분석하여 행사유형별로 어떠한 유형의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가를 파악하여 관련유형의 범죄전문가를 선별하여 근무케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등과 협조하여 CCTV, 가로등 등의 방법시설을 보강할 필요성도 있다. 장비적 개선과 더불어 경비협회 등과 협조하여 경비지원인력을 확보하고, 자율방범대 등의 협력단체와 협력방법활동을 실시하는 것도 효과적일 것이다.

V. 결 론

대규모의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한 행사의 운영일 것이다. 우리나라도 국가경쟁력이 성장함에 따라서 다양한 국제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곧 대구에서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개최될 것이다. 이러한 국제행사를 안전하게 개최하기 위해서는 공공의 안녕에 관한 책임을 담당하는 경찰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 경찰은 이미 다양한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른 경험이 있기에 이번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도 성공적으로 치를 경험은 축적되어 있다. 그러나 안전이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으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도 자신할 수 없는 것이 안전일 것이다. 더구나 최근 빈라덴의 사망으로 인하여 미국과 우방국에 대한 테러리즘의 공포와 조장이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우리 경찰은 이번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는 물론 앞으로 지속적으로 치러질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첫째, 사전안전관리를 물론이고 상설행사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행사에 참여하는 요인에 대한 체계적인 경호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셋째,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신속한 이동체계를 확립하고 테러방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넷째, 불법집회시위에 대한 조기 대응이 필요하다. 다섯째, 치안공백에 대비한 협력체제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참 고 문 헌

- 국무총리훈령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 제391조
- 김성태, 김계원. (2003). 한일 월드컵 주요구역 경비실무 사례연구. 경호경비연구 제7호: 309-331.
- 김정학. (2003). 국제행사시 경찰과 민간경비의 실태분석과 문제점. 동국대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태민. (2006). 한국 민간경호업무 운용시스템 모델 설정에 관한 연구, 용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뉴스미션, 2008년 8월 9일, 20년 만에 둘러보는 서울올림픽의 추억,
<http://newsmission.com/news/2008/08/09/1514.24235.html>
- 동아일보, 2002년 7월 23일, 원권위 월드컵때 집회시위 자유 침해
- 매일경제신문, 2011년 5월 17일 화요일, "서울역 '사제폭탄', 주가조작 노린 범죄",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1&no=307271>
- 박동균. (2006). 대규모 시민참여 혼잡경비의 사례분석과 함의. 한국경찰연구 제5권 제1호: 199-220.
- 서울신문, 2011년 2월 21일 31면
- 서울G20정상회의 종합치안백서. (2011). 서울: 경찰청.
- 세계육상선수권대회 홈페이지. (2010). 대회소개,
http://www.daegu2011.org/do/front/page/championship_info?lang=kr
- 신성식. (2008). 공연·행사장 경비에 있어서 경찰의 안전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스포츠와 법 제14호: 275-296.
- 오현득, 이기중, 이수범. (2005). 국제행사 안전대책 방안에 관한 연구. 관광·레저연구, 제30호: 156-172.
- 최응렬. (2004). 대규모 국제행사시의 안전관리대책. 한국경찰학회보 8권: 22-26.
-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2011). 달리자 함께 내일로 대구 2011.



발표 3

IAAF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안전개최를 위한 경호경비운용

김 태 민(경운대학교 경호학부 교수, 경호학 박사)

<목 차>

- | | |
|---------------------|----------------------|
| I. 서 론 | III. 경호경비운용 실태와 정책제언 |
| II. 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경호경비 | IV. 요약 및 결론 |

I. 서 론

세계는 제국주의시대와 동서냉전시대를 지나 새로운 다극화시대로 움직이고 있다. 빈 라덴의 죽음이 문명의 충돌에 종지부를 찍은 것은 아니다. 서구와 이슬람 문명 간의 충돌을 반영하는 사건들은 연일 세계뉴스의 앞머리를 차지하고 있다(이홍구, 2011: 35). 테러정보통합센터의 국제테러동향에서도 빈 라덴 사망에 따른 보복테러 우려 증가를 공지하고 있는데, “빈 라덴 사망에 따른 알 카에다 연계세력의 반미·반서방 보복위협 지속 증가하고 있는데 알 카에다(AQ)¹⁾는 인터넷 성명에서 미국인과 서방 동맹국 대상 보복테러를 공언”했다고 한다.

1980년대 이후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한 국제화와 개방화의 영향, 인터넷을 통한 디지털 경제시대로의 진입, 시장개방의 가속화 등은 국가, 인종, 민족 간의 구분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국가간 인적·물적 교류가 확대되고 교통·통신 등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범죄조직 역시 세계화되었다(경찰청, 2010: 285). 우리나라도 더 이상 테러리즘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지적들은 이미 여러 채널을 통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환경 속에 월드컵축구대회, 올림픽과 함께 세계 3대 스포츠이벤트로 불려지는

1) 테러정보통합센터 국제테러단체 소개에 의하면, 알 카에다(Al Qaeda)는 전세계 이슬람 근본주의 확산 및 이슬람 신정국가 건설을 투쟁목표 1988결성되었다. 조직규모는 3,000여명(행동대원)에 지원세력이 수만명에 이르고, 911테러 이후 소그룹 단위로 전세계 57개국에 분산/잠복하고 있다. 미국은 1998년, 영국은 2001년, UN은 2001년에 테러단체로 지정하였으며, 최근 아프간/파키스탄 접경지역에 은신하면서 테러지령을 하달하고 연계/추종세력들이 실제 테러를 자행하고 있다.

IAAF 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대구에서 개최된다. 이미 우리나라는 1988년 서울올림픽과 2002한일 월드컵축구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렀으며, 오는 8월 27일이면 꿈, 열정, 도전을 이념으로 9일간 세계 213개국에서 6,000여명(선수·임원, 기자단)이 참가하는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대구에서 개최하게 된다.

그러나 테러리즘과 범죄의 위협뿐만 아니라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리허설 격인 대구국제육상경기대회에서도 경기운영적 문제점들과 관중동원에 문제점이 나타났으며, 공사 중단 등과 같은 문제도 나타나 우려되고 있다.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는 2005년부터 매년 대구국제육상경기대회를 개최하면서 세계선수권대회운영에 필요한 실전 경험을 쌓아왔다. 또 IAAF에서 강사를 초빙, 심판 아카데미를 운영해 138명의 주임심판을 양성하는 등 세심한 준비를 해왔다. 그러나 이번 대회를 앞두고 최종 리허설로 열린 대구국제육상대회에서 운영 미숙과 관중 동원에 실패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빈축을 샀다. 육상 불모지인 우리나라의 관중들은 경기에 대한 몰입도가 매우 떨어졌으며, 경기 운영에 미숙함을 드러내면서 경기시간이 지연되는 등 낙제점을 받았다. 그리고 대구 시내 호텔 객실은 이미 대회 관계자(3,200여명)용으로 예약돼 있어 숙박시설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아시아투데이, 2011.5.13). 또한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개막 3개월여를 앞두고 또 암초를 만났다. 주 경기장 서편 주차장 지하 공간 개발 공사가 중단됐기 때문이다. 공사 중단이 장기화될 경우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운영에 차질이 생길 우려도 있다(서울신문, 2011.5.27: 15).

우리는 이미 올림픽과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국제적으로 높은 위상을 확보하였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브랜드는 한국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크게 상향시켜 경제적 이익을 실현시켰고, 국내적으로는 민족단합이라는 실질적 효과도 만들어 낸다.

월드컵축구대회나 올림픽 등 세계적 스포츠행사는 이벤트마케팅의 최대 전장이 되고 있다. 월드컵축구대회의 경우에도 한국의 국가이미지가 ‘조용한 아침의 나라’에서 ‘역동적이고 활기찬 다이내믹 코리아’로 실질적으로 변화되었다(삼성경제연구소, 2002: 19).

우리나라는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스웨덴, 일본, 독일에 이어 월드컵, 하계 올림픽,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등 국제 스포츠 3대 이벤트를 모두 개최하는 7번째 국가가 됨으로써 세계적 스포츠 강국으로 부상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세계육상선수권대회는 대구와 대한민국이 지구촌에 강력히 부각되는 매우 드물고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며, 스포츠를 통한 도시와 브랜드 가치 제고는 물론, 국민 자긍심을 높이는 데도 커다란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홈페이지, 2011.5.3.검색). IAAF세계육상선수권대구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국내 육상의 발전과 경제적 실익은 물론 국가이미지 상향에 기여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빈틈없는 안전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대구광역시의 경우 상인동지하철공사장 도시가스폭발사고²⁾, 2003년 대구지하철 화재사

2) 1995년 4월28일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동 1호선 건설현장에서 새어 나온 도시가스가 폭발하면서 등교하던

고³⁾ 등 대형사건사고가 발생했다. 최근 발생한 서울역·강남터미널의 물품보관소 부탄가스통 폭발사건⁴⁾과 같이 예상하지 못한 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다.

특히 대규모 스포츠행사장의 경우는 테러리스트로부터 그들의 목적을 관철시키기 위한 좋은 범행대상이 되며, 다중이 운집하는 특성상 총체적 안전관리대책마련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11년 8월 27일부터 9월 4일간 개최되는 IAAF세계육상선수권대회(IAAF World Championships Daegu 2011)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경호경비운용의 실태와 발전적 정책제언을 하고자 한다.

II. 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경호경비

1. 세계육상선수권대회⁵⁾

1) 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의의

국제육상경기연맹(IAAF,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Athletics Federations)의 탄생은 1912년 7월 17일, 스웨덴 스톡홀름 회의에서 17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국제 아마추어 육상연맹의 창설로부터 시작된다. 이 총회는 예비적인 회의였지만 IAAF의 기록상으로는 첫총회가 되었고, 후속 총회도 이에 의거하여 지정되었다. IAAF 본부는 스웨덴과 영국에 본부를 두고 있다가 1993년 8월, 스투트가르트 총회에서 결정에 따라 1993년부터 모나코에 본부를 두고 있다. 세계육상선수권대회는 국제육상경기연맹(IAAF)이 주관하며, 1983년 핀란드 헬싱키에서 처음 개최된 이래 제2회 대회까지는 4년 주기로 개최되다가 1991년 제3회 일본 도쿄대회부터 2년마다 홀수 해에 개최되고 있다. 대회에 참가하는 회원국은 212개로 국제연합(UN) 회원국보다 많으며, 세계 정상급 선수 2,000여명, 임원 1,500여명, 기자단 2,500여명 등 총 6,000여명이 참가하고, 전 세계 65억명 이상이 TV중계를 시청하는 등 단일종목의 국제대회로는 가장 권위 있는 대회이다.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는 2002 FIFA월드컵과 2003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를 위해 건설한 경기장 시설을 활용하여 신규 시설투자 없이 경제적인 대회로 개최할 수 있으며, 대회준비와 운영과정에서의 경제활동은 물론, 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에 따른 지역산업의 수출증대, 해외투자

영남중고 학생과 출근길 시민 등 101명이 숨지고 125명 부상하였다.

- 3) 2003년 2월 18일, 대구광역시 대구지하철 1호선 중앙로역내 전동차에서 발생한 방화사고이다. 용의자는 좌석 위에 놓인 플라스틱류(신나)의 병 뚜껑을 열어 라이터를 켜는 순간 “핑”하는 소리와 함께 착화되어 화염이 용의자의 옷과 차량 좌석시트에 인화되어 급격히 전동차 내부로 확산된 화재임. 이사고로 인적피해 340명(사망 192, 부상 148), 재산피해 614억 77백만원 발생하였음. 당시 3,272명(소방 992, 경찰 1,020, 의료 189, 군 70, 기타 1,001명)이 투입되었다(소방방재청, 2004: 415-416).
- 4) 5월 12일 오전 부탄가스통에 디지털 타이머를 연결한 사제폭탄 2개를 서울역과 강남고속터미널의 물품보관함에 투입한 뒤 폭발시킨 사건이다.
- 5)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홈페이지(<http://www.dacgu2011.org>) 자료를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유치 촉진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제적 수준의 문화, 관광, 스포츠 관련 인프라 구축으로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등 막대한 간접적 파급효과도 기대된다(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홈페이지, 2011.5.3.검색).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경기종목은 총 47개종목(남자 24, 여자23)이다.

<표 1> 대회 경기종목(총 47종목)

구 분		남자 (24)	여자 (23)
트랙 (24)	단거리	100m, 200m, 400m	100m, 200m, 400m
	중거리	800m, 1500m	800m, 1500m
	장거리	5000m, 10000m	5000m, 10000m
	릴레이	4×100m, 4×400m	4×100m, 4×400m
	허들	110mH, 400mH	100mH, 400mH
	장애물	3000m 장애물	3000m 장애물
필드 (16)	도약	멀리뛰기, 높이뛰기, 세단뛰기, 장대높이뛰기	멀리뛰기, 높이뛰기, 세단뛰기, 장대높이뛰기
	투척	창던지기, 원반던지기, 포환던지기, 해머던지기	창던지기, 원반던지기, 포환던지기, 해머던지기
로드레이스(5)		마라톤, 20km경보, 50km경보	마라톤, 20km경보
혼성경기(2)	10종 경기 1일차	100m, 멀리뛰기, 포환던지기, 높이뛰기, 400m	100m허들, 높이뛰기, 포환던지기, 200m
	2일차	110m허들, 원반던지기, 장대높이뛰기, 창던지기, 1500m	2일차 멀리뛰기, 창던지기, 800m

2) 세계육상선수권대구대회 장소 및 시설 환경

(1) 대회장소 및 시설

대회장소 및 시설은 주경기장인 대구스타디움을 비롯해, 연습장인 선수촌 연습장, 시민운동장 연습장, 준비운동장인 투척전용 준비운동장, 대구스타디움 준비운동장이다.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주경기장은 대구스타디움으로서 2002FIFA월드컵, 2003대구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2005년부터 매년 실시하는 대구국제육상경기대회 등 국제 스포츠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낸 검증된 시설이며, 2003년 IAAF로부터 1등급 경기장으로 공인을 받은 곳이다. 첨단 IT기술을 접목한 HD 고화질 전광판은 관중들에게 1000분의 1초 차이로 승부가 결정되는 육상경기 상황을 보여줄 수 있다.

(2) 마라톤 및 경보코스

마라톤코스는 녹색도시 대구의 푸르름과 도심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감상할 수 있는 코스이다.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을 출발하여 대구를 대표하는 명소를 경유하는 이 코스는 레이스하기에도 비교적 순탄하며,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시민들의 모습을 만나기도 좋은 코스이다. 경로는 15km × 2회⁶⁾와 12.195km × 1회⁷⁾로 구성된다.

경보코스⁸⁾는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에서 출발하여 대구 중심가로인 국채보상로 Loop코스이다.

<표 2> 대회장소 및 시설 개요

구분		장소 및 시설 개요		
주경기장 (대구스타디움)	위치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흥동 504번지		
	대지면적	512,479m ²		
	연면적	141,799m ²		
	관람석	66,422석(차양74%이상) -A열 (B1층)13,760석, B열 (1층)17,659석, C열 (2층)10,632석, D열 (3층)22,557석, 장애인석96석(동편 B1층), Sky Box12실		
	연습시설	400m × 8레인(직선 100m 9레인)		
	거리	선수촌에서 6km, 공항에서 9km		
	주차장	실내 203대, 실외 2,547대		
연습장	선수촌 연습장	위치	대구광역시 동구 율하동(선수촌 인접 체육공원 내)	
		시설	400m트랙, 도약경기연습장, 경보코스, 투척연습장(포환, 원반, 해머, 창던지기), 마라톤연습코스(B=5m, L=1.1km)	
		거리	주경기장에서 6km	
	시민운동장 연습장	위치	대구광역시 북구 고성3가 2번지	
		대지면적	45,820m ² (연면적: 13,173m ² -지상 4층)	
		연습시설	400m트랙, 도약경기연습장	
준비운동장	투척전용 준비운동장	위치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경기장 인근(남서쪽)	
		연면적	11,600m ²	
	대구스타디움 준비운동장	연습시설	창던지기, 원반던지기, 해머던지기, 포환던지기	
		위치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경기장 인근	
		연면적	10,025m ² (지상 1층)	
		연습시설	400m × 8레인, 도약	

자료: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홈페이지(www.daegu2011.org)자료의 재구성

- 6)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청구네거리>수성네거리>범어네거리>어린이회관삼거리>황금네거리>두산오거리>수성못오거리>중동네거리>대구은행네거리>반월당네거리>중앙네거리>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 7)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청구네거리>수성네거리>범어네거리>어린이회관삼거리>황금네거리>들안길네거리>중동네거리>대구은행네거리>반월당네거리> 계산오거리 U턴 > 반월당네거리 > 중앙네거리>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 8) 경로는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중구청 U턴>노보텔>한일극장 U턴>공평네거리>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2. 경호경비의 의의와 경호환경

1) 경호경비의 의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경호의 개념을 “위험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조심하고 보호함”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경비의 개념을 “도난, 재난, 침략 따위를 염려하여 사고가 나지 않도록 미리 살피고 지키는 일”로 정의하고 있다.

법률상 경호의 의미를 정의하고 있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는 경호의 개념을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에 가하여지는 위해(危害)를 방지하거나 제거하고, 특정 지역을 경계·순찰 및 방비하는 등의 모든 안전 활동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 「경비업법」에서는 경비업과 경비업무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데, 한국의 경비업무를 5종(시설경비업무, 호송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기계경비업무, 특수경비업무)으로 분류하고 있다. ‘경비업’이란 시설경비업무, 호송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기계경비업무, 특수경비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이라고 하며, 시설경비업무란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경비대상시설)에서의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호송경비업무란 “운반중에 있는 현금·유가증권·귀금속·상품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신변보호업무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 기계경비업무란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특수경비업무란 “공항(항공기를 포함한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로 정의하고 있다.

현재까지도 ‘경비’와 ‘경호’의 개념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어 학계에서도 용어의 정립에 관해 이슈화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호’와 ‘경비’의 용어사용에 관해 보편적 인식의 개념에서 접근하자면 관련업계에서는 신변보호활동 및 호위⁹⁾적 성격이 주(主)가 되는 업무수행활동을 ‘경호’의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고¹⁰⁾, 경호대상자의 생명 또는 재산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특정한 시설 및 지역을 경계·순찰·방비하는 활동을 ‘경비’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 보편적 인식이다(김태민, 2005: 21-22).

경호경비는 다양한 관점에서 분류될 수 있는데, 경계대상에 의한 경비는 치안경비, 재해경비, 혼잡경비, 특수경비, 중요시설경비로 분류되고, 여기에서 혼잡경비란 경기대회, 기념행사 등의 미조직 군중의 혼란 또는 혼란에 의하여 발생하는 예측 불가능한 사태를 예방·경계·진압하는 작용

9) 호위란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가해지는 위해를 근접에서 방지 또는 제거하는 행위를 말한다.

10) 실제로 신변보호업무 허가를 받은 경비업체들의 홈페이지를 분석해 보면 대다수 업체들이 “경호업무”로 표기(극소수는 신변보호업무)하고 있으며, 전국 경호·경비관련 학교의 학과명에서도 “경비”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모두 “경호학과”로 명명하고 있다.

을 말한다(경찰종합학교, 1987: 23-24 ; 김두현, 2011: 44재인용). 사이버경찰청 경찰용어사전에서는 혼잡경비(混雜警備)를 “경축식, 운동경기, 집회 등 각종행사와 귀성객, 성묘객 등 운집된 군중으로 인한 무질서 정리와 교통관리 실시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경호원은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상황에 적합된 다양한 경호기법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경호임무완수를 위해서는 긴밀한 협조체제가 요구되며 경호원 개개인의 책임과 경호조직의 책임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요구된다. 특히 경호원은 비상상황 발생시 세밀한 대응계획에 따라 그 임무의 수행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경호대상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경호의 원리와 기법에는 일반원칙과 특별원칙, 자연방벽효과의 원리, 주의력효과와 대응효과 원리, 근접경호기법, 우발상황 발생 시 SCE원칙, 축수거리의 원칙, 체위확장의 원칙¹¹⁾ 등 많은 경호기법들이 있다(김태민, 2005: 182).

<표 3> 경호의 일반원칙과 특별원칙

원 칙		내 용
일반 원칙	3중경호 (중첩경호)	경호대상자를 중심으로 내부, 내곽, 외곽으로 구분하여 3중의 안전구역으로 구분하여 운용
	두뇌경호	경호실시에서 두뇌의 역할이 지대하고 중요
	방어경호	경호대상자에게 우발상황이 발생할 경우 공격적인 행동보다는 방어 위주의 엄호 행동이 요구
	은밀경호	정적인 상황에서 은밀하게 행동
특별 원칙	자기담당구역 책임	자기가 맡은 자기 담당구역 내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사태에 대해서도 자신만이 책임을 지고 해결
	목표물 보존	경호대상자를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 자들로부터 이격
	하나의 통제된 지점을 통한 접근	경호대상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 출입구 또는 통로는 하나만 필요
	자기희생	자신을 희생하는 일이 있더라도 경호대상자의 신변안전을 반드시 유지

자료: 경찰종합학교(1987: 207-216) ; 경찰대학(1994: 240-241) ; 신동건·김시택(1994) ; 김두현(2011: 46-50)의 재구성

11) ‘축수거리의 원칙’은 우발상황 발생 시 공격의 위치에 가장 가까이 위치하고 있는 경호원이 대응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체위확장의 원칙’은 우발상황이 발생되면 경호원은 자신의 몸을 은폐 또는 엄폐시키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확장시켜 위협자의 공격으로부터 자연방벽효과와 동시에 범인의 시야를 가림으로써 방어효과를 극대화 한다는 원칙이다.

<표 4> 우발상황(비상사태) 발생 시 ‘SCE’원칙

SCE원칙	내용
“S” (Sound Off)	“경고”란 육성이나 무전으로 전 경호원에게 상황 내용을 긴급히 전파하는 것으로서, 효과는경호대상자에 인접한 근접요원들이 신속하게 행동을 취할 수 있게 하고, 공범이 있을 경우 제2의 공격에 대비할 수 있음
“C” (Cover)	“방호”란 우발상황을 처음 목격한 경호원이 “경고”하게 되면, 근접 경호원은 동시에 신속히 방벽을 형성
“E” (Evacuation)	“대피”란 위해 음모는 대부분 공범이 있으므로 신속히 현장에서 경호대상자를 안전한 곳으로 이탈시킴

자료: 이상철(1997: 15-16)의 재구성.

2) 경호환경

김두현(2011: 405)은 모든 조직은 특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인간의 협동체로서 그 조직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유기적인 상호작용을 하며, 경호조직은 조직의 구성원, 재정, 규모 등 내적환경(internal environment) 및 그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외적환경(external environment)인 일반적 환경과 암살, 테러, 유격전 등 특수적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고 하며, 경호의 일반적 환경(경제발전, 생활환경의 악화, 동력 및 정보의 팽창, 생활양식 및 국민의식의 변화, 범죄의 다양화와 증가)과 특수적 환경(암살, 테러, 유격전)으로 설명하고 있다.

‘테러’는 일반적으로 “정치적(이념적) 폭력”으로 정의되며, ‘테러리즘’은 테러행위자가 그의 목적 달성을 위해 행해진 테러행위를 통칭하며, 테러보다는 이념적이고 포괄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많다.

국제적으로 정립된 ‘테러’의 개념은 없으나 미국·일본·영국·독일 등 각국의 대테러 관련법 또는 국제협약 등이 정의한 내용을 살펴보면 “①정치적 목적이나 동기 ②비전투 요원의 신체·생명·재산을 대상 ③미리 계획되고 지속성을 가진 사건 ④공포심을 수반한 폭력의 사용이나 위협”이라는 공통되는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또 ‘뉴테러리즘’은 99년 당시 미 국방부가 후원하는 민간연구소인 ‘랜드(RAND) 연구소’에서 처음 사용한 용어로 최근의 테러가 종래의 테러 양상과 달리 무차별화·대형화되는 현상을 지칭한다. 95년 일본 ‘옴 진리교’의 동경 지하철 사린가스 살포, 미국 9·11항공기 자살충돌 테러가 대표적인 사례이다(테러정보통합센터 대테러상식, 2011.3.30.검색).

빈 라덴 사망에 따라 국제사회는 보복테러를 우려하여 긴장하고 있다. 예멘 알카에다(AQAP)는 “빈 라덴이 양성한 수천명의 전사들이 보복성전을 계속할 것이다”라며 공개적으로 위협하고 있고, 알 카에다 연계 소말리아 테러단체인 알 샤바브(AS)는 수도 모가디슈에서 개최된 집회에서 “우리는 성전을 강화하여 적들을 제압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테러정보통합센터 국제테러동향,

2011.5.9). 한국을 둘러싼 테러양상과 테러 환경 역시 국제안보환경에 따라 변화하고 있고 점진적으로 다양화되고 있다. 그러나 테러환경의 변화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부족하고 이에 대한 논의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제화의 진전에 따라 위험지역에 대한 방문객이 증가했으며, 대테러전쟁에 따른 국제공조의 일환으로 단행된 아프간과 이라크에 대한 파병은 아랍권에서 한국에 대한 적대감의 표출로 이어지고,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테러의 직간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기본적인 테러환경이다(이만중, 2011: 4).

범죄 또한 점진적으로 양적 증가추세를 보이며 지능화, 다양화, 광역화, 기동화, 흉포화되고 있다. 더불어 북한의 위협도 상존하는 것이 한국의 기본적 경호환경이다.

우리나라도 테러리즘으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니며, 언제 어디에서 어떤 형태로 일어날지 모를 잠재적 위협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안전한 세계육상선수권대구대회의 개최를 위해 만발의 대테러 대응책과 범죄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III. 경호경비운용 실태와 정책제언

1. 대구국제육상경기대회의 경호경비운용 사례

아시아권 국제육상경기대회(대구, 상하이, 가와사키)의 개최도시간 네트워크 구축으로 아시아 육상 발전과, 리허설을 통한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성공 개최를 목적으로 2011 대구국제육상경기대회(Colorful Daegu Pre-Championships Meeting 2011)가 2011년 5월 12일 대구스타디움에서 개최되었다.

<표 5> 2011대구국제육상경기대회 개요

구분	대회 개요
대회명	2011대구국제육상경기대회(Colorful Daegu Pre-Championships Meeting 2011)
대회일시	2011.5.12(목) 18:40 ~ 21:30
	○ 식전행사(18:15~18:40)
	○ 개회식(18:40~18:53)
	○ 장내정리(18:53~19:00)
	○ 육상경기(19:00~21:40)
	○ 시상식(21:25~21:40)
경기장소	대구스타디움(보조경기장포함)
참가규모	150명 정도(국외110, 국내40)
경기종목	16종목 [남자8, 여자8/트랙10, 필드6/남자장애인 휠체어경기(T53) 별도]
주관주최	대구광역시/대회조직위원회, 대한육련, 대구육련

자료: 2011대구국제육상경기대회 팸플릿 ; 2011대구국제육상경기대회 홈페이지 (<http://www.dg-athletics.or.kr/>)자료의 재구성

대회목적에서 밝힌 바와 같이 2011대구국제육상경기대회는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리허설 대회성격을 갖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대회에서 경호경비운용 주체였던 경찰과 민간경호경비의 사례를 제시하여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 참고하고자 한다.

2011대구국제육상경기대회의 경호경비부문은 민간경호경비업체인 (주)가드포유¹²⁾에서 담당하였으며, 경찰은 500여명¹³⁾이 투입되어 안전을 확보하였다. (주)가드포유에서는 경기구역, VIP구역, VIP주차장, 도핑실구역, 경기장외곽에 40~50여명의 경호경비원을 배치하여 임무를 수행하였다.

<표 6> 2011대구국제육상경기대회 민간경호경비의 임무

배치구역		민간경호경비의 임무
VIP구역	-VIP관람석, R-BOX, 통로	출입통제, 신분보호
GATE	-VIP GATE	출입관리
	-미디어전용	출입관리
	-GATE	출입자 소지품검색/반입금지품 관리
기타	-VIP차량 진입로	차량진입 관리
	-도핑구역	도핑관련자 출입통제
	-그라운드 진입로	그라운드 진입로 출입통제

2011대구국제육상경기대회에는 약 20,000여명의 입장관중(초청인사 500명, 대학생 홍보단 1,500여명, 시민서포터즈 10,000여명, 일반시민 8,000여명)이 참석하여 총 16종목의 경기를 관람하였다. 경기관리 측면에서는 큰 사고 없는 무난한 경기관리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만 국민의 관심도 등 흥행에 대한 우려감과 대민홍보 및 자원봉사자 교육이 미흡(배치장소를 이탈하거나 관람인파에 섞여 임무 소홀)했다는 평가도 있었다.

2. 세계육상선수권대구대회의 경호경비 운용

1) 경호경비 체계

경호경비의 주체란 경호경비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경호경비작용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경호경비 당사자 및 조직을 의미한다. IAAF세계육상선수권대구대회 경호경비의 핵심적 업무실행 주체는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경찰, 민간경호경비, 자원봉사 등이다. 또한 대구광역시, 소방기관 등이 관계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호경비 주체 간 원만한 상호협력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12) 2002년 3월 설립되어 현재 시설경비업무와 신분보호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대구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이다.

13) 경찰기관에서는 경찰, 경찰관기동대, 의경, 특공대 등이 투입되어 안전활동, 경기장, 교통, 기능별, 부책 등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들 경호경비주체의 역할과 임무가 설정되어야 하고, 그것을 근간으로 상호협력 및 지원시스템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공경호경비와 사경호경비 사이의 상호역할에 대한 기준 설정의 필요성이 오래전부터 논의되어왔고, 지금은 기준이 명확하게 정립되어 양자간의 공조와 상호작용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김제홍, 2004: 170).

2) 민간경호경비 운용

(1)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 경호경비업체의 선정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에서는 2011년 1월 최초로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민간경비원 용역업체 공모(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공고 제2호)를 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기간은 2011. 8. 10 ~ 2011. 9. 7이고,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 포함 320,000,000원(사업예산은 추정치로 사업내용에 따라 변동)의 규모로, 입찰¹⁴⁾ 및 계약방식은 협상에 의한 계약(전자입찰¹⁵⁾으로 공고되었다. 입찰에 대한 사업설명회¹⁶⁾는 2011년 2월 9일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회의실(6층)에서 개최되었다. 이때의 입찰참가 및 제안서 제출기간은 2011. 2. 28. 18:00까지(가격입찰서 G2B 제출기간 : 2011.02.25. 10:00~2.28.17:00)였다.

그러나 1차 입찰결과는 총 7개업체가 참가하였으나, ‘평가점수미달’의 사유로 유찰되었다.

1차 입찰의 유찰로 재입찰이 진행되었다. 2011년 3월 21일자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민간경비원 용역업체 공모(긴급)가 진행(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공고 2011-제15호)되었다. 1차공모와는 달리 특별한 사업설명회는 없었다. 재공모의 입찰참가 및 제안서 제출기간은 2011. 4. 1. 18:00까지(가격입찰서 G2B 제출기간 : 2011.03.29. 10:00~4.01.17:00)였다.

그러나 재공모결과 역시 총 6개업체가 참가하였으나, ‘제안서평가 부적격’의 사유로 유찰되었다.

14) 입찰참가 자격은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 ② 경호·경비 관련 경찰청 허가를 득한 사업체 이고 ③ 업체에 소속된 경호·경비인력이 대회 기간 중 1일 소요인원인 220명을 소화할 수 있어야 하며 ④ 공고일 현재 국내·외에서 체육, 문화, 축제행사에 경호·경비 용역실적이 있는 법인 사업체(건물경비용역은 제외함)

1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2200.04-158-3, 2009.9.21)』 규정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 적용.

16) 설명회의 주요내용 : 사업내용 설명, 제안서 작성 요령, 기타 제안서 제출에 따른 질의 응답 등

<표 7>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 민간경비 입찰 진행 과정/결과

구분	공고명	실수요 기관명	입찰마감	계약방법	개찰	참가수	진행상황	
							결과	사유
1차 공모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민간경비원용역 업체 공모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11/02/28 17:00	일반(총액) 협상에의 한계약	2011/02/28 18:00	7	유찰	평가 점수 미달
재공모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민간경비원용역 업체 재공모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11/04/01 17:00	일반(총액) 협상에의 한계약	2011/04/01 18:00	6	유찰	제안서 평가 부적격

자료: 나라장터자료를 저자가 편집/재구성

이후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민간경비원 용역업체는 (주)가드포유와 지포에스씨큐어솔루션스(주)¹⁷⁾가 수의계약에 의해 최종 운영업체로 선정되어 민간경호경비임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2)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 경호경비의 주요 임무¹⁸⁾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민간경비원 용역업체 공모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근무인원 1일 220여명 정도가 2011.8.10 ~ 9. 7(29일간)까지 대회관련 직접시설에 민간경비원을 배치하여 안전 활동을 수행하게 되어있다.

- 총 사업비는 320,000천원이며(사업내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과업의 범위는
- 첫째, 대회관련 직접시설¹⁹⁾ 대상 위해인물 시설출입 차단
- 둘째, 대회관련 직접시설 대상 위해물품 반입 차단
- 셋째, 중요구역 출입통제 및 질서유지이다.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민간경비원 용역업체 공모 제안요청서 상 민간경비원 인력배치 계획은 다음 <표 8>과 같다.

경기장 외곽에서는 개폐회식과 일반경기의 안전을 위해 게이트 등지에서 위해인물 및 위해 물품 시설반입 차단하는 임무를 주어졌다. 경기장 내부에서는 VIP구역 등지에서 관계자 이외 해당 구역 출입차단의 임무가 주어지고, 보조경기장과 투척전용 연습장의 출입구에서도 출입통제 임

17) 영국 G4S의 한국 법인으로 2003년 G4S 한국법인 설립 후, 2010년 지포에스씨큐어솔루션스(주)로 법인명을 변경하였다. 서울특별시 소재기업이다.

18) 본 연구에서는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 경호경비관련 구체적으로 산출된 자료 및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민간경비원 용역업체 공모 제안요청서 내용에 따른 사항을 제시한다. 또한 투입인원과 배치계획도 업체선정 후 재협의될 수 있으므로 실제와 오차범위가 있을 것이다.

19) 대구스타디움, 선수촌, 본부호텔, 총회장소

무가 주어진다. 선수촌에서는 출입구 등지에서 출입자 검색과 출입통제 임무가 부여되며, 총회장소에서는 회의장 출입구의 출입통제 임무가 주어진다. 본부호텔에서도 출입통제 임무가 부여되며, 안전상황실 및 안전실에서는 근무자 배치 및 감독, 상황종합 및 전파의 임무가 주어진다.

<표 8>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 민간경호경비원 배치 계획

구분	분야별	배치지역	배치기간	일인원	주요임무
경기장 외곽	개폐회식	게이트9개소	• 2011.8.27 • 2011.9. 4	82	위해인물 및 위해 물품 시설반입 차단
		미디어전용게이트			
		IBC출입구			
		RH compound 출입구			
	일반경기	B1층IBC 푸드 코트 통로	2011.8.28~ 9. 3	72	위해인물 및 위해 물품 시설반입 차단
		게이트9개소			
		미디어전용게이트			
		IBC출입구			
경기장 내부	RH compound 출입구	2011.8.27~ 9. 4	46	관계자 이외 해당구역 출입차단	
	B1층IBC 푸드 코트 통로				
	VVIP/VIP구역				
	VIP차량 진입로				
보조경기장	도핑구역	2011.8.27~ 9. 4	2	출입통제	
	그라운드 진입로				
투척전용연 습장	주출입구	2011.8.27~ 9. 4	2	출입통제	
선수촌	주출입구	2011.8.10~ 9. 7	66	출입자 검색	
	부출입구			출입통제	
	선수촌내문				
	숙소동 출입구				
총회장소	회의장 출입구	2011.8.23~ 8.25	4	출입통제	
본부호텔	인터블고	본관 주출입구	2011.8.18~ 9. 7	8	출입통제
		주차장 출입구			
	별관 출입구				
인터블고엑 스코	본관 주출입구	2011.8.18~ 9. 7	4	출입통제	
기능실	안전상황실		2011.8.10~ 9. 7	2	상황종합 및 전파
	경기장안전실		2011.8.27~ 9. 4	2	• 근무자 배치 및 감독 • 상황종합 및 전파
	선수촌안전실		2011.8.10~ 9. 7	2	• 근무자 배치 및 감독 • 상황종합 및 전파

3. 발전적 정책 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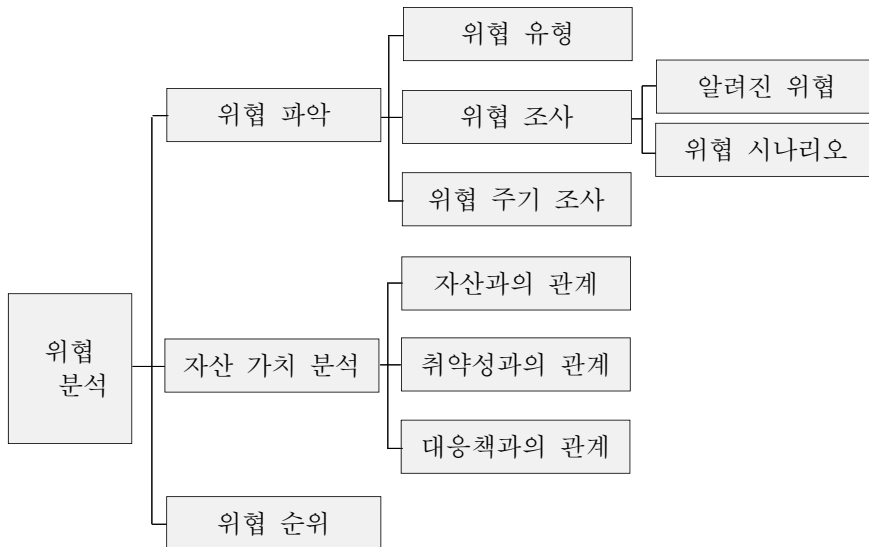
1) 위험분석과 체계적 경호경비계획에 의한 임무수행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기 위해서는 다각도에서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하겠지만, 안전부문의 역할도 광범위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즉 이 대회의 위험분석을 토대로 체계적인 경호경비계획의 수립과 실행이 필요하다.

위험 분석은 경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으로 포괄적 경호환경의 위험을 평가하고, 대응책을 제시하여 안전에 관한 제반대응책 구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위험 분석은 자산에 악영향을 가할 수 있는 잠재적인 요소인 위험을 파악하고 발생 가능성 등을 분석하는 과정으로, 위험을 산출하는데 있어 중요한 단계이다. 특히 자산과 취약성간의 관계를 정의함으로써 향후 위험이 미칠 대상을 고려하게 된다. 위험 분석은 크게 위험 파악, 위험 속성, 위험 순위의 3개 과정으로 나뉘는데, 위험 파악에서는 위험을 유형별로 분류, 조사하고 각 위험의 주기를 산출한다. 위험 속성에서는 위험과 자산, 취약성, 대응책의 상호관계를 파악하고, 위험 순위에서는 파악된 위험 주기를 바탕으로 위험의 심각성에 따라 가장 고려해야 할 위험부터 순위를 산출한다(국가정보원 국가정보보안 실무편람, 36). 위험 분석 과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위험 분석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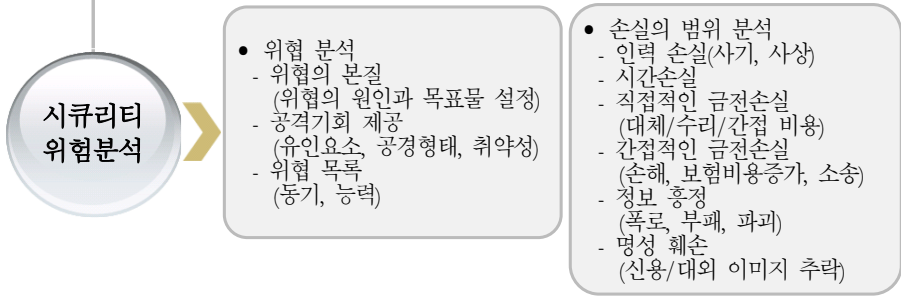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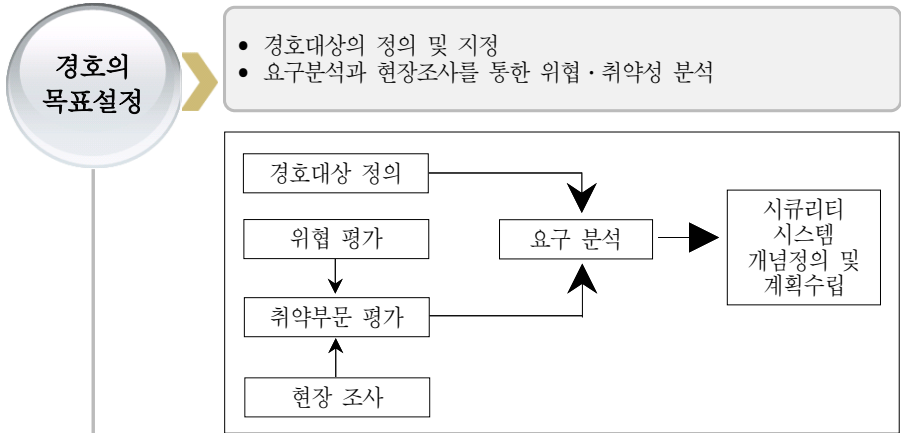


자료: 국가정보원, 국가정보보안 실무편람, 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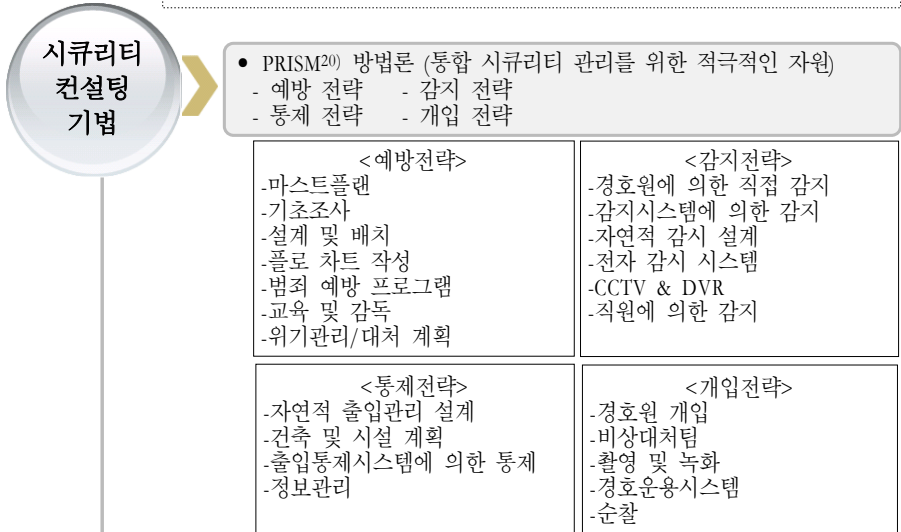
김태민(2005)은 경호경비계획의 수립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논의하면서 <그림 2>와 같이 체계적인 경호경비계획 단계를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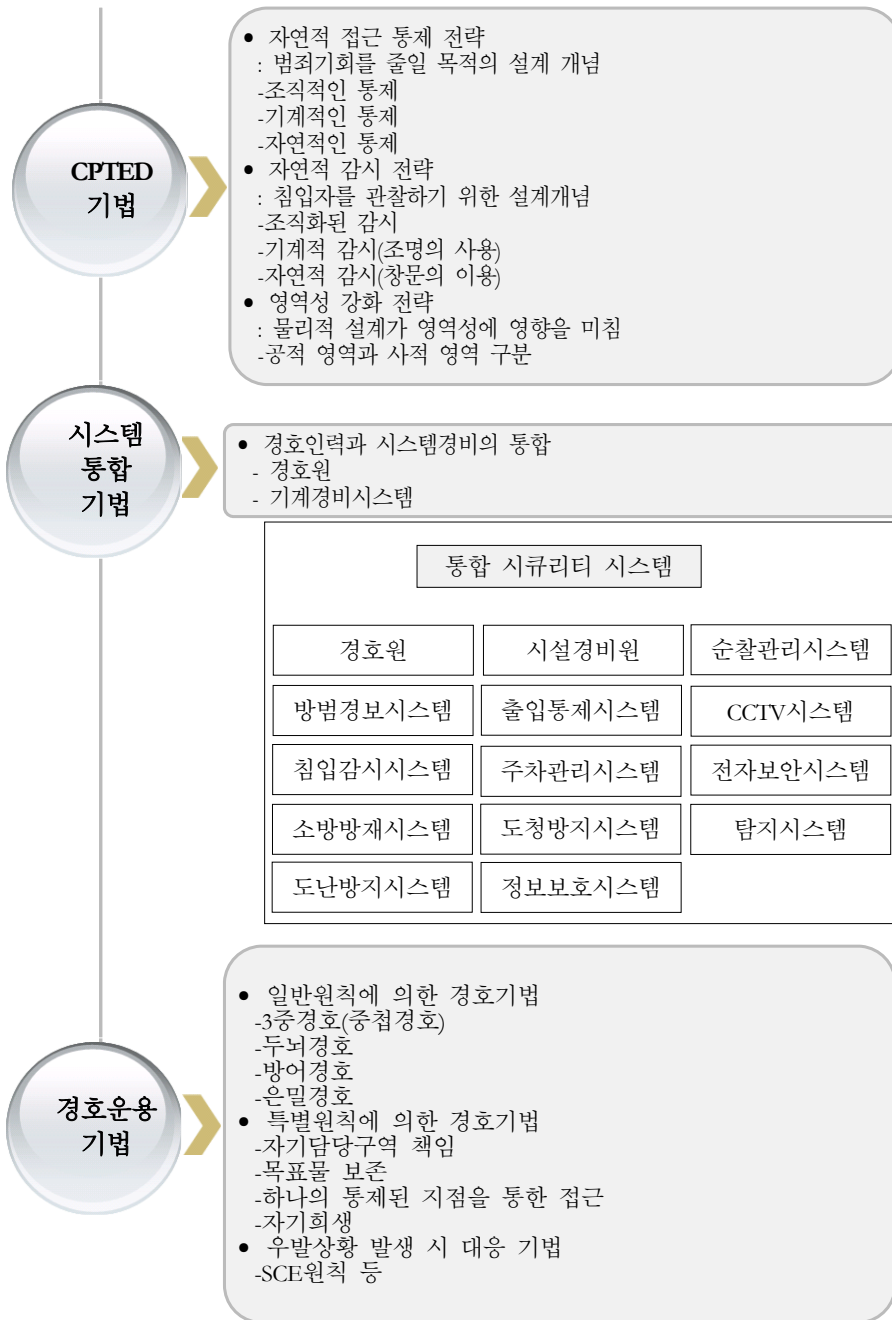
<그림 2> 경호경비계획 단계

※ 계획수립은 '시큐리티기획사'가 직접 작성해야 함
 ※ 계획수립1단계는 계약준수 및 이행의 초기단계로서
 • 계약 약관에 상응한 시큐리티 컨설팅을 수행
 • 사용자 요구조건을 수용하여 경호의 목표설정과 위험 분석



※ 계획수립2단계는 계획수립을 위한 시큐리티 기법의 적용단계
 • 시큐리티 컨설팅 기법 • CPTED 기법
 • 시스템 통합 기법 • 경호운용 기법





자료: 김태민(2005: 223-228)

2) 일원화된 지휘통제시스템의 구축

경호조직은 경호지휘단일성의 원칙, 경호체계통일성의 원칙, 경호기관단위작용의 원칙, 경호협력성의 원칙 등에 따라 조직되어야만 완전한 경호경비를 할 수 있다(경찰대학, 1994: 110-115).

성공적인 조직에 대한 전제조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휘의 단일이다(Wilson: 1977: 80). 경호원은 다수가 있어야 하지만, 지휘는 단일해야 하고 이를 분할할 수는 없다. 즉 지휘가 단일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경호기관(요원)은 한 사람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는 말이다. 상급감독자나 하급 보조자가 지휘자의 권한을 침해한다면 전체 경호조직은 혼란에 빠지게 되고 마비상태가 될 우려가 크다(김두현, 2011: 162-163). 따라서 이번 대회에서도 경호지휘단일성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경호조직의 상하위 체계가 일관되는 통일적인 체계가 있어야 한다. 즉 경호체계통일성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효율적인 체계가 확립되어야만 상하 의견 소통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경호조직 간 상호응원과 업무상 충돌도 감소되어 경호조직이 효율적으로 운용되며 전체 경호 임무가 효율성 있게 전개될 수 있다.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안전관리 주체는 2011대국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경찰, 민간경호경비, 자원봉사, 대구광역시, 소방기관 등 여러 조직이 관여하게 된다. 따라서 조직이 통합하여 유연하게 안전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2011대국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를 중심으로 일원화된 지휘통제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일원화된 지휘통제시스템에 따라 각 기관은 주체로서의 활동을 해야 한다.

소방방재청 「공연·행사·지역축제장 안전매뉴얼 : 공연·행사장 안전매뉴얼 편」에서는 각 기관별 검토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표 9> 체육행사 유관기관별 검토사항

유관기관	검토사항
행사 주최자	안내 및 안전관리요원을 확보하고 긴급상황 발생시 대처요령 수립 관람객에 등에 대한 질서유지 및 보조시설, 안내시설 설치계획 수립 이동통로·관람석·임시시설 등에 안전사고 위험요인 확인 충분한 안전관리요원을 확보하여 교육 등
지방자치 단체	신축 시설·장비에 대한 시험결과 장애·사고요인 파악, 제거 여부 확인 행사장 자체 통제·감시·안전시스템 구축 실태 확인 행사장 기둥·계단·지붕 등 구조물 안전성 및 사고 위험방지시설 설치 및 관리대책 등
경찰	일정에 따른 교통수단, 이동시간 등 대 시민 교통정보 홍보 및 전파체계 확인 경기장 내·외부 울타리·출입문 등에 대한 검색 및 통제관련 대책 수립 위험·핵심시설에 대한 접근로 차단 및 통제시설 관리 대책 행사장 등 관련시설 내·외곽 접근·이동로관리 및 교통안전 대책 등
소방	행사장의 소방본부 위치, 소방차량 통로확보실태 등 소방인력·장비 및 운영사항 숙지 비상계단이나 비상구에는 대피에 장애가 될만한 장애물을 제거하고 소화기의 위치 및 사용법 등 사전 숙지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기능상 이상유무 확인·점검 행사장내 소방, 구조·구급 요원 및 장비 확보 등

자료: 소방방재청(2009: 85-87)의 재구성

3) 경호경비 운용적 측면에서의 제언

본 연구에서는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경호경비 운용의 효율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 하고자 한다.

첫째, 관련 법제의 준수사항이다. 행사장안전관련 법률은 「공연법」, 「경비업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관광진흥법」 등이다. 해당관계 기관 및 기업에서는 법제의 최소한 준수사항을 지켜 안전한 대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둘째, 실질적 운영측면에서 동선관리의 중요성 인지와 대책마련이다. 행사장경호경비의 안전 확보를 위해 매우 중대하게 다루어야 하는 것이 동선관리이다. 최선우(2009: 622)는 공연·행사장의 안전관리에서 안전사고의 원인을 시설물에 대한 안정성 검토의 미흡과 현장관리능력의 부족(현장 안전관리요원의 전문성 부족, 동선관리의 소홀)을 지적하고 있다.

동선관리는 장소·시설 등의 구조물의 활용, 대상자·행사일정 등 시간의 적절한 관리(지연), 이동거리의 연장과 단축, 대상자별 이동로·통로의 분리 등 안전관리의 핵심적 요소에 해당한다. 공간이나 동선을 사전에 분리하지 않아 분위기 과열 시 압사, 집단충돌, 폭력난동 상황 등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있다. 출입문 앞 또는 매표구 앞의 통제선은 직선보다는 ‘ㄷ’자 내지 ‘S’자와 같이 힘을 분산시킬 수 있는 형태가 중요하다(최선우, 2009: 623-624).

또한 통제선의 설치도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

셋째, 취약점 분석에 따른 대응책 마련이다.

최근 서울역과 강남고속버스터미널의 물품보관함에서 부탄가스통으로 만든 사제폭탄이 폭발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물품보관함과 같은 취약점에 대한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안전사고의 방지를 위해 최첨단 전광판 활용을 최대화해야 한다. 다시 말해 홍보자막이나 홍보방송 등을 통해 시민들의 질서의식 제고(질서지키기, 음주추태, 노상방뇨, 교통질서, 군중심리적 행동 등) 및 안전의식을 주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다섯째, 비상대응책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여러 사람들이 집단으로 모였을 때는 개별 주체의 일상적인 사고와 다르거나, 그 범위를 뛰어넘는 행동을 하게 되는 다양한 군중심리(群衆心理) 상태를 보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국내에서 일어난 행사장 사건사고들이 발생했을 때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 운영 매뉴얼에 대한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따라서 경비업체에서는 정형화되고 표준화된 전문 매뉴얼의 작성과 운영능력이 요구된다. 더불어 행사 주최/주관사에서는 참여한 시민들에게 안전사고 및 비상대응 매뉴얼을 배포한다면, 시민들의 안전의식 고취는 물론 안전확보를 보장받는데 유효하게 작용할 것이다(박동균·김태민, 2011: 17-18).

마지막으로 경호경비원의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안전을 담당하는 자원봉사자도 포함된다.

세계 각국의 어느 경호원이든 간에 바람직한 경호원이 되기 위해서는 확고한 가치관의 정립, 충만한 사기관리 및 자질구비, 좋은 교육환경 및 교육의 질적 향상, 합리적인 법규 및 제도개선 등의 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김두현, 2011: 171). 박동균·김태민(2011)은 행사장 경호경비업무는 사고발생시 수많은 인명이 다칠수 있고, 다중이 운집하는 관계로 고도의 경호경비운영능력이 요구되며, 따라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어야 할 것을 제기하였다.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 투입되는 경호경비원들은 시설경비업무와 신변보호업무를 수행하는 일반경비원이다(「경비업법」 §2). 시설경비업무 중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곳²¹⁾에 배치된 일반경비원, 신변보호업무를 수행하는 일반경비원의 경우에는 근무배치 전까지 신입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경비업법」 §18; 「경비업법 시행규칙」 §12③).

그리고 경비업자가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배치를 폐지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시설경비업무 중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곳에 배치된 일반경비원과 신변보호업무

21) 1.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행사장 그 밖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시설 또는 장소로서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비원에 의한 경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2. 노사분규가 진행 중인 사업장 또는 노사분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장
3. 주택개발·재건축관련 이해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장소
4. 특정 시설물의 설치와 관련하여 민원이 있는 장소
5.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이해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장소
6. 건물·토지 등 부동산 및 동산에 대한 소유권·운영권·관리권·점유권 등 법적 권리에 대한 이해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장소(「경비업법 시행규칙」 §24①).

를 수행하는 일반경비원의 경우에는 경비원을 배치하기 24시간 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경비업법」 §18②; 「경비업법 시행규칙」 §24①).

그런데 각종 행사장에 배치되는 민간경비조직의 구성은 일반적으로 실질적 경호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조직(행사장 내·외부의 경비를 수행하는 팀, 요인 등에 대한 신변보호 팀)과 행사진행(행사 진행팀, 안내 팀 등)을 담당하는 조직으로 구성되어 운영된다. 경비업은 계약처의 등급료 및 등급총액에 따라 경비조직 및 인력구성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며, 행사주최/주관사의 등급료에 따라 전문 경호경비원의 활용 및 구성비가 달라진다.

자원봉사자는 물론 진행요원들(안내포함)은 「경비업법」에서 정한 경비원 자격(결격사유)은 물론 배치신고와 교육이수의 규정이 없으므로, 주최/주관부서 또는 경비업체에서 제공하는 간단한 교육만을 받고 배치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에게서 전문경호경비업무 수행을 기대할 수 없으며, 비상상황발생시 대처능력과 운영능력발휘에 따른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다. 따라서 행사 주최/주관부서에서는 안전부문에 대한 예산의 폭을 확대하여 전문 경비원에 의한 경호경비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박동균·김태민, 2011: 15-16), 핵심업무와 진행업무를 명확하게 설정하여, 잠재적 취약요소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취약요소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은 경호경비직무관련 교육·훈련과 비상훈련 등의 마련과 실행이다.

IV. 요약 및 결론

2007년 케냐 몸바사에서 국제육상경기연맹(IAAF) 집행이사회에서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육상경기가 취약한 한국의 대구에서 개최하기로 결정된 이후, 이 대회를 위해 정부, 지방정부는 물론 대구의 시민들도 열성을 가지고 성공개최를 위해 준비하고 있다.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에서도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적으로는 범죄의 양적 증가, 국제적으로는 최근 빈 라덴 사망에 따른 알 카에다 연계세력의 반미·반서방 보복위협과 보복테러 우려도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세계 3대 스포츠이벤트로 불리는 IAAF 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대구에서 개최되는 시점에서,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경호경비운용의 실태와 발전적 정책제언을 하고자 하였다.

IAAF세계육상선수권대구대회 경호경비의 핵심적 안전업무실행 주체는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경찰, 민간경호경비, 자원봉사(안전부문) 등이다. 또한 대구광역시, 소방기관 등이 관계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호경비 주체 간 원만한 상호협력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경찰과 민간경호경비의 협력적 안전활동에 총력을 기해야하며, 민간경호경비업체에서는 자체 보유하고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대회관련 대구스타디움, 선수촌, 본부호텔, 총회장소 등 직접시설 대상 위해인물 시설출입 차단, 대회관련 직접시설 대상 위해물품 반입 차단, 중요구역 출입통제 및 질서유지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기 위해서는 다각도에서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하겠지만, 안전부문의 역할이 광범위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즉 이 대회의 위험분석을 토대로 체계적인 경호경비계획의 수립과 실행이 필요하다.

또한 일원화된 지휘통제시스템의 구축도 필요하다.

경호경비 운용적 측면에서는 관련 법제의 준수, 실질적 운영측면에서 동선관리의 중요성 인지와 대책마련, 취약점 분석에 따른 대응책 마련, 안전사고의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비상대응책 마련, 그리고 경호경비원의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같은 대규모 행사장 경호경비업무는 사고발생시 수많은 인명이 다칠 수 있고, 다중이 운집하는 관계로 고도의 경호경비운영능력이 요구되며, 따라서 경호경비원은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어야한다.

따라서 전문 경호경비업체는 물론 배치되는 경호경비원과 진행요원, 자원봉사자까지 경호경비 직무관련 교육·훈련과 비상훈련 등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공인 경호경비원 자격제도가 마련되어 사전에 교육·훈련된 전문인에 의한 경호경비 임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제도적으로는 일본과 같은 준경비원(보조원)과 같은 제도의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시민의 협조와 자원봉사 확대, 그리고 관계하고 있는 기관과 업체의 협력체계가 잘 이루어져 금번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서울신문」. (2011). 대구스타디움 건설 또 ‘스톱’ 세계육상선수권 대회 차질?. 5. 27: 15.
- 「아시아투데이」.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D-100 준비 완료?. 5. 18.
-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민간경비원 용역업체 공모 - 제안요청서
-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홈페이지. (www.daegu2011.org)
-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공고 제2호
-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공고 2011 - 제15호
-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자원봉사자 소양교육교재」.
- 경비업법. (개정 2009. 4. 1, 법률 제9579호).
- 경비업법 시행령. (개정 2011. 4. 4, 대통령령 21827호).
- 경비업법 시행규칙. (개정 2011. 4. 4, 행정안전부령 210호).
- 경찰대학. (1994). 「경찰학개론」. 용인: 경찰대학.
- 경찰종합학교. (1987). 「경비경찰·경호경비·통신경찰·전술학」. 경찰종합학교.
- 경찰청. (2010). 「2010 경찰백서」. 서울: 경찰청.
- 김계원. (2010). 「경호학」. 인천: 진영사.
- 김두현. (2011). 「경호학개론」. 서울: 엑스퍼트.
- 김봉의·김동수. (1994). 「경비실무(일반경비·작전)」. 정문출판사.
- 김제홍. (2004). 「대규모 스포츠행사의 경호경비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 김태민. (2005). 「한국 민간경호업무 운용시스템 모델 설정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용인대학교 대학원.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개정2011. 4. 28, 법률 제10603호).
- 박동균·김태민. (2011). 거리응원 안전대책의 발전과제. 「한국행정학회 춘계국제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1-25.
- 삼성경제연구소. (2002). 「2002 월드컵」과 사회·문화적 변화. Issue Paper, 2002.8.6.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과 소방정책과. (2011). 「2011年 消防行政資料 및 統計」. 서울: 소방방재청.
- 소방방재청. (2004). 「2003년 재난연감」. 서울: 소방방재청.
- 소방방재청 예방안전국 예방전략과. (2009). 「공연·행사·지역축제장 안전매뉴얼 : 공연·행사장 안전매뉴얼 편」. 서울: 소방방재청.

- 신동건 · 김시택. (1994). 「경비실무」. 경찰행정연구원.
- 이만중. (2011). 국내 자생테러의 위협과 우리의 대비전략. 「대테러정책 연구논총」, 8: 1-50.
- 이상철. (1997). 경호기법에 입각한 경호무도 지도방법에 대한 고찰. 「용인대학교 무도연구지」, 8(1): 13-25.
- 이홍구. (2011). 빈 라덴의 죽음과 ‘문명의 충돌’. 「중앙일보」, 5. 23: 35.
- 최선우. (2009). 「민간경비론」. 인천: 진영사.
- Wilson O. W. (1977). Police Administration. New York: McGraw Hill Book Company.

Memo

Memo

Memo

Memo

Memo

한국치안행정학회 2011년 하계학술세미나

2011년 6월 1일 인쇄

2011년 6월 3일 발행

발행인 : 박동균

발행처 : 한국치안행정학회

편집인 : 한국치안행정학회 편집위원회

전화 : 054)479-1353 / 전송 : 054)479-1359

인쇄처 : 한솔기획인쇄

전화 : 053)422-1828 / 전송 : 053)423-1828
